

충남발전연구원 소도시연구회 워크숍(CDI 세미나 2014-48)

소도시 활성화에 있어서 주민 주도성의 강화와 지속화 방안

2014. 8. 18[월]

충남발전연구원

□ 워크숍개요

- 일 시 : 2014년 8월 18일(월) 15:30~18:00
- 장 소 : 강경읍 젓갈전시장
- 개최목적 : 도시 및 지역개발의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주도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가로, 이에 소도시(농촌중심지)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역량 강화 방안과 '강경읍 역사마을 만들기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대안을 모색코자 함.
- 참석자 : 20명 내외(발표 2명, 소도시연구회원, 논산시 주민 및 공무원)
- 주제발표
 - 1주제 : 강경 근대역사문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성과
윤석일 기획실장(강경역사문화연구원)
 - 2주제 :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주민 자율의 강경읍 역사도시 만들기 구상)
안근철(지역활성화센터 연구원)
한상욱(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 질의 응답 및 토론
 - 발제자 2인과 워크숍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토론
- 주관·주최 : 충남발전연구원 소도시연구회

□ 세부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5:30	16:00	30	• 참가자 등록	-
16:00	16:10	10	• 개회 - 환영사 : 강경읍장 - 인사말 : 충남발전연구원 소도시연구 회장 - 참석자 소개 : 사회자	(사회) 이상준 박사(충남발전연구원)
16:10	17:00	50	• 주제발표 - 1주제 : 강경 근대역사문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성과 - 2주제 :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주민 자율의 강경읍 역사도시 만들기 구상)	윤석일 기획실장(강경역사문화연구원) 안근철 연구원(지역활성화센터) 한상욱 부장(충남발전연구원)
17:00	17:10	10	• 휴 식	-
17:10	18:00	50	• 토 론 - 좌 장 - 지정토론 - 자유토론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박창원 교수(도립청양대학교) 정현수 원장(강경역사문화연구원) 송주철 소장(공공디자인연구소)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
18:00 ~			• 폐 회	(사회) 이상준 박사(충남발전연구원)

□ 워크숍 참여자

구분	소	속	이 름	비 고
사회자 (1인)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이상준 박사	
발제자 (3인)	강경역사문화연구원	기획실	윤석일 실장	
	지역활성화센터		안근철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한상욱 부장	
토론자 (3인)	청양대학교		박창원 교수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정현수 원장	
	공공디자인연구소		송주철 소장	
기타 참석자	충남발전연구원	소도시연구회원		10명
	강경읍	주민 및 공무원		10명

목 차

I. 강경 근대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성과 1

윤석일 기획실장 (강경역사문화연구원)

II.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주민 자율의 강경
읍 역사도시 만들기 구상) 55

안근철 연구원(지역활성화센터)

한상욱 부장(충남발전연구원)

참고자료. 초기의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사례 69

- 서산시 고북면 지역역량강화 사업 현장포럼 결과

(주) 퍼포먼스웨이컨설팅

강경 근대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성과

윤석일 기획실장 (강경역사문화연구원)

목 차

1. 동기부여	3
2. 자료수집	4
3. 자료정리	5
4. 학술발표를 통한 방향설정	5
5. 근대역사보고 강경,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들	6
6. 강경의 정신문화	8
7. 우리가 꿈꾸는 강경	9
8. 부록 1	10
9. 부록 2	33
10. 부록 3	49

“강경 근대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성과”

- 강경역사문화연구원, 및 성지순례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

강경역사문화연구원기획실장, 근대역사전시관 대표
강경 기독교성지순례 위원장. 강경제일감리교회 담임 윤 석 일

1. 동기부여(자료수집 또는 寶庫에 대한 읍민 또는 지도자들에게 동기부여)

1) 근대역사보고 강경에 대한 읍민 인식을 위한 노력

2) 기독교 성지순례코스 협력위원회 조직 활동(2008,12)

-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강경(2010년11 윤석일),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 강경 부록편(윤석일), 기독교성지순례코스 강경(2010)(성지순례위원회), 출판기념회
- 첫갈축제 홍보판설치(사진 및 배너 안내판 설치), 성지순례협력위원회 주관
- 강경아름다운신문제작 3천부 무료배포,(2010,10-2012,1),강경제일감리교회
- 놀피신문 강경 근대역사문화 연재, 18회 강경역사문화연구원 기획실

3) 시청의 협력을 위하여 근대역사문화 보존에 대한 건의 및 의견서 제출 수차 방문

4) 노인정, 방범대, 청년회의소, 경로대학 등 강의 및 홍보

5) 강경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활동(2011,4)

6) 스승의 날 발원지 행사시 강경소개 책자발간 2012년

7)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 강경 증보판 책자출판 2012년

- 8) “강경의 역사와 문화” 책자 출판(2013년10월21일 정현수)
- 9) "강경 역사문화학교 개강"2014년 7월 10일
- 10) 논산시 100년 대계 아이디어 공모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
- 11)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 마을, 강경"충남발전 연구원과 협력 전국 홍보자료 제작
- 12)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 마을, 강경"에 대하여 행안부와 협의

2. 자료수집

1)전문가 조언

- 공주대학,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 충남대학교 역사학자의 의견수렴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박물관, 논산문화원, 협력

2)자료수집

- 물품:근대생활 필수품 및 강경과 관련된 물품 찾기
- 사진:개인, 단체, 문화원, 언론계, 박물관 등
- 기록물:논산 문화원, 시청자료실, 도서관, 시지, 신문 등
- 전국 역사관 박물관 방문 벤치마킹(인천 선교역사 박물관, 인천역사관, 군산역사박물관, 천안역사박물관, 목포 근대역사관, 부산 근대역사관, 숭실대학 역사박물관 등)
- 지역사회 사진 소유자 탐방 및 협력
- 골동품 가게 운영자 협력
- 식당 및 개인 사업자 설득

3. 자료정리

※ 굿웨이 출판사 설립, 대형 사진관 설립, 임시 수장고 운영

- 1) 전문적 기술 소유자 협력
- 2) 물품관리 자원 봉사자 협력

4. 학술발표를 통한 방향설정(강경에 관한 논문 집필 및 발표)

- 1) 강경읍 소재 3대 공공기관 이전논의에 대한 기초연구(충발연)
- 2) 자료수집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준 박사)
- 3) 강경 근대역사문화유적지 개발비전(윤석일)
- 4) 역사도시 강경, 어떻게 가꿔가야 하나(웍크샵. 충발연, 읍사무소)
- 5) 강경지역의 기독교 초기 역사(김홍수 박사)
- 6) 일제강점기 강경교회의 만동학교(송현강 박사)
- 7) 강경지역 역사문화탐방코스 정비기본계획 기독교 성지순례코스중심(논산시)
- 8) 강경 덕유정과 지역사회 활동(송현강 박사)
- 9) 삼대시장을 아시나요? (박송규 위원)
- 10) 논산경찰서 성역화 및 대둔산 지구전투(송현강 박사)
- 11) 서재필의 독립운동사상과 방략 (홍선표 박사)

- 12) 강경 비전포럼 (윤석일)
- 13) 식민주의 사관과 그 극복의 문제(이만열 박사)
- 14) 강경 삼일독립만세운동 학술 발표회(이덕주 박사)
- 15) 강경 노동조합의 변천사(정현수 원장)
- 16) 강경포구와 향토돛배(정현수 원장)
- 17) 논산시의 정체성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가(정현수)

5. 근대역사보고 강경,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들

1) 도지정문화재

- 미내다리, 원목다리, 임리정, 팔괘정, 죽림서원

2) 등록문화재

- 구 한일은행지점, 구 연수당한약방, 강경상고관사, 중앙초등학교 강당, 구 노동조합, 화교학교, 갑문, 배수장(정수장)

3) 향토유적

- 덕유정, 최초침례교회예배처, 순국경찰관 합동묘지, 해조문

4) 중요 근대 건축물(준 등록문화재 급) 13개

- 구 세무서장관사
- 구 식산은행 지점장관사
- 미곡창고
- 김철수의 집

- 강경천주교회
- 조선산업주식회사 윤길중사장 주택
- 서웅선 고택,
- 강경역장 관사
- 철교
- 사주거리 다리
- 히로시 가옥과 비슷한 가옥(망성)
- 영단
- 금교와 비슷한 다리

5)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근대건축물거리)

- 성모약국, 대동전기, 문성사, 00잡화점(이종우), 화신 농약사, 고려상사(김상만), 흥인병원, 신광양화점, 양복점, 이시화 잡화점, 한성백화점, 이완규 철물점, 조선산업주식회사, 천주교회, 미술양복점, 유중현 집
- 야식집, 시보당, 금광당, 오복상회, 서울백화점, 대성알미늄, 중앙농약사, 천애당, 영칠이 식당, 재생당한약방, 중앙양조장, 중앙문구

6) 본정통(사주거리, 흥교리)

- 밀짚모자, 국수집, 김인수 집, 이명옥, 서정득 집, 연수당, 김대건신부 유숙지, 강경여관, 신해여관, 장방형주택(검사객주 김자영)
- 개인주택, 동광상회, 삼성병원, 동양한약방, 솔부릿간, 삼광양말, 개인 주택 2, 송창현고택, 계란집, 대성여관자리, 성결교회(식산은행), 남일 여관 자리, 채운여관 자리, 상고관사, 물문, 상고교사관사, 낭하이 집, 등등 집

7) 산재된 근대 건축물들 조사 및 출판계획 근대건축물 150여개

6. 강경의 정신문화

- 1) 기호유학의 충남 최초 강학소 임리정(도지정 문화재67호)과 팔괘정(도지정 문화재76호)
- 2) 덕유정에서 출발한 지역최초 사립 만동학교
- 3) 최초 신사참배 거부지(강경성결교회, 중앙초등학교)
- 5) 충남 최초 노동조합(노동운동사)
- 6) 충남 최초 대규모 삼일운동 (옥녀봉-상시장- 본정통)
- 7) 스승의 날 발원지(강경고등학교)
- 8) 최초 경로헌장비(경로사상)
- 9) 83위 강경 경찰서 순국경찰관
- 10) 66명의 순교자 병촌성결교회
- 11) 이종덕 목사 순교
- 12) 안순득속장 애국애족 사상(애국부인회 활동)
- 13) 한완봉(세례명 방지거)의 반공사상
- 14) 이화교회(설인수 손정석 이진팔)3인순교
- 15) 항일투쟁으로 애국애족 정신을 실천에 남다른 곳
 - 신사참배 최초 거부지
 - 충남 최초 삼일 만세운동(대규모500명)이 일어난 곳-옥녀봉 1919년3월10일, 20일

- 최초 일본 역사 수업 거부지(강경중앙초등학교 5학년 대표 윤판석)
- 일제에 무언의 항의로 상가 철시운동 1919년 3월 31일
- 애국부인회 활동 독립군 군자금 모금(강경지회장 안순득 여사)

16) 경로사상의 철두 철미한 교육장소(송재 윤희 선생의 숙원이요 사상)

- 1956년 전국최초로 설립된 만수재(경로당)
- 1983년 경로헌장 비
- 노인의 날 제정 건의
- 칠월 칠석날 경로잔치(윤희선생 기념사업회)

7. 우리가 꿈꾸는 강경

- 1) 온 주민이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마을, 강경 (전국에 유일한 근대 도시 지정)
- 2) 전국에 제일 많은 근대 건축물의 보존과 정신문화 개발로 전국 읍중에 등록문화재가 제일 많은 읍으로 가꾸고자 한다
- 3)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마을(역사 정립), 문화가 흐르는 마을(각종 동아리 활동),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젓갈, 전통시장, 신산업 관광 활성화), 뿌리깊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 4) 이 일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근대 건축물들을 조사하고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특히 소유자들에게 근대 건축물의 소중성을 인식하게 하고 훼손하지 아니하고 지켜온 것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다.

■ 부록 1

강경의 비전

2014년 1월

강경역사문화연구원 기획실장: 윤 석 일
연락처:

강경의 비전

“근대역사 문화가 숨쉬는 관광 명품도시 강경”

- 200년 전통 젓갈의 고장이 강경의 비전은 강경에 살면서 평상시에 느낀 점과 특히 역사문화연구원 기획실장으로 봉사하며 강경이 근대역사보고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아 비전을 세운 것이다

1. 근대역사문화 관광 도시

- 충남의 근대역사 발상지로 부각시키자

1) 충남 근대역사 발상지

- 최초 침례교회, 충남 최초 우체국, 최초 구 한일은행, 충남 최초 수도시설 배수장, 최초 노동 조합, 충남 최초 강경극장, 호남병원, 호남호텔, 호남제일의 남일당 한약방, 전기, 전화, 슬프석유, 가발공장, 연락선, 충남 최초 기호 유학의 강학소 임리정, 충남 최초 근대식 학교 한남학당, 중앙초등학교, 사립만동학교, 사진관, 전국 최초 경로당 만수제 등

2) 국내 최고의 근대도시 강경-근대도시? -

- 부산, 인천, 목포, 군산, 강경 중에서 현재 근대 건축물이 제일 많은 곳이 강경이다. 등록문화재 7개(구 한일은행, 구 노동조합, 강경상고 관사, 중앙초등학교 강당, 강경연수당한약방, 강경화교학교, 구 강경성결교회) 새로 신청한 부동산 등록문화재(구 식산은행장관사, 서웅선고택, 갑문, 구 세무서장관사, 정수장), 동산(강경역 열차시간표, 덕유정 용추, 덕유정 기록물, 중앙초등학교 앨범,) 등 4개 확보로 향후전국에서 제일 작은읍 중에 등록문화재가 제일 많은 곳으로 근대 역사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곳 강경으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3) 설립 및 설립예정 역사관 및 기념관

- 근대역사전시관(설립), 강경역사관(설립), 근대건축물거리(조성중), 기독교성지순례코스(확정), 근대문화 탐방코스, 스승 존경관(추진) 일본인 역사박물관, 박범신,문학관 및 예술의 집, 83위 순국경찰관 추모관, 물 사랑 체험관, 화폐박물관, 충남근대역사박물관 등을 세워 강경을 근대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체험 및 볼거리를 만든다

4) 주제에 맞춘 개발과 보존

(1) 옥녀봉(역사 문화)

- 한국 최초 침례교회, 한강이남 최초 기차교회, 논산8경중 제7경, 봉수대, 해조문, 신사직이 집, 충남최초(대규모,500명이상)삼일만세운동, 국내최초 경로헌장비, 송재 윤훈선생 추모비, 진창옥선생 공적비, 안순득여사 추모비.

(2) 돌산(교육의 뿌리와 비전)

- 충남최초 기호유학 강학소 임리정, 팔괘정, 죽립서원, 사립만동학교.

(3) 채운산(애국과 순국정신)

- 순국자 추모비, 반공소년 한완봉(방지거)묘, 배수장, 영암사. 채운정 전적비

※ 주제에 맞추어 해당 주변을 근대 역사문화 도시에 합당하게 가꾸어 간다

2. 근대역사보고 강경문화재 개발 보존 관광자원화

1) 도지정문화재-죽립서원, 임리정, 팔괘정, 미내다리, 원목다리

2) 등록문화재

- 구 한일은행, 노동조합, 화교학교, 중앙초등학교강당, 강경상고 관사, 연수당 한약방, 구 강경성결교회,(갑문, 구 식산은행장관사, 구 세무서장관사, 정수장)

- 덕유정 기록물, 용추, 중앙초등학교 앨범, 강경역열차시간표 : 지정이 필요함

※ 시소유가 아닌 건물(구 강경성결교회, 화교학교, 연수당 한약방,)을 논산시에서 매입할 것과 중앙초등학교 강당, 강경상고 관사 학교당국과 협의가 요함

3) 향토유적

- 덕유정, 해조문, 순국경찰관합동묘지, 최초침례교회예배처

4) 등록문화재 등재를 위한 신청 중.

- 부동산:구 세무서장 관사, 구 한일은행지점장 관사, 배수장, 미곡창고, 갑문, 서용선 고택
- 동 산:덕유정 기록물, 덕유정 용추, 구 한일은행 금고, 구 세무서장 관사 내 금고, 강경역 열차시간표, 강경중앙초등학교 졸업앨범 등

5) 향토유적 및 근대건축물로 보존 되어야 할 것들

- 신광양화점, 양복점, 대동전기, 화신농약사, 구 십오당, 삼성병원, 밀짚모자공장, 동광상회점포, 본정통 거리에 근대건축물들(개인주택), 강경천주교회

3. 유교문화단지(※ 근대역사보고 강경에 포함)

- 죽림서원, 임리정, 팔괘정, 덕유정 등 기호 유학의 충남 최초 강학소 임리정

4. 기독교성지순례코스(개발 및 보존)

- 한국 최초 침례교회예배처, 개신교 한강이남 최초 7자교회, 지역최초 만동학교 지역 최초 유치원, 전국 최초 신사참배거부한 구 강경성결교회, 일본역사 최초 수업거부 구 성결교회 66명의 순교자 병촌성결교회, 김대건 신부 유숙지 및 천주교회와 나바위 성당.

※ 복원요청=개신교 한강이남 최초 7자교회, 지역최초 사립 만동학교, 김대건신부 유숙지*

※ 강경 포구에 김대건 신부와 폴링선교사 입국기념 조형물설치(배 및 동상 등)

※ 역사문화탐방코스 정비계획(기독교 성지순례코스를 중심으로)2009년 논산

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기독교성지순례 전임 가이드 임명요청 논산시 해설사와 동등한 예우의 가이드가 필요함

5.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본정통 거리조성)확대 추진

- 1) 옥녀봉길36-1-60까지(연수당, 신광양화점, 양복점, 화신농약사, 구십오당, 대동전기 등)
- 2) 계백로 219번길 53-65-1까지(김대건신부 유숙지, 강경성결교회, 근대건축물 주택등)
 - 계백로 219번길 옛 본정통(사주거리)를 포함하여 보존 하여함을 건의 함.
 - 이곳은 현재 밀집모자공장, 동광상회, 삼성병원, 삼광양말공장, 식산은행자리, 근대식 개인주택 등 근대건축물 표시제 실시

6.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지정 표시제 실시

- 근대건축물에 대한 표시제로 누구든지 근대건축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찰을 붙인다
- 표시로 소유주와 주변 읍민과 관광객 들에게 정보제공과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조치로 근대건축물을 보존한다.

7. 논산경찰서 83위 순국자 성역화

- 1) 내용: 강경경찰서 성역화 83명의 순국자 추모관 및 유품전시관, 영화관 등, 전국경찰관 교육훈련장, 전국민의 국가관 및 애국애족 사상을 교육하는 순례코스지로 삼을 것.

- 2) 실례: 이스라엘 마사다. 로마군인과 끝까지 싸우다 960명이 죽음으로 항거한 이스라엘 군인정신의 초석이 된 것처럼 이 곳이 경찰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의 초석이 되도록 하자
- 3) 장소: 현 논산경찰서가 이전 되면 그 곳에 성역화를 추진 하자.
- 4) 추진위원회를 범 논산시 또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속히 조직하고 특별히 관련된 자료 수집은 참전 경우회 중심으로 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 5) 각계 각층의 관계 기관의 협력을 얻어 추진한다.

8. 충청남도 근대역사 박물관 설립(충청남도에 건의 함)

- 1) 근대역사 도시 강경에 충남 근대역사 박물관 설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부여, 공주는 백제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강경은 근대역사 도시로 개발하여 부여 공주와 연계하여 일본인 중국인 미국 영국인 등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것(목포와 군산과 네트워크로 근대도시로 발전)
- 2) 장소:
 - A-안=테마공원 북쪽 공터 및 가옥 매입 (공원과 함께 노동조합, 구 한일은행과 연계)
 - B-안=논산 경찰서 이전시 그곳이 박물관 자리로 최적지임(논산경찰서 성역화와 함께)

9. 예술의 집(문학인의 만남 장소) 만동학교 옆

- 강경읍 황산리 102번지, 105,
- 이곳은 문화의 거리 구역으로 죽림서원과 김장생 선생의 강학소 임리정과 송시열 선생의 강학소 팔괘정이 있는 곳으로 이미 공원화 되었으며 이곳은 기호 유학의 본거지로 널리 알려졌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바로 옆으로 금강이 흘러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돌산 전망대는 강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이곳에 900여평의 대지에 허물어진 옛 만동학교의 흔적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문화 예술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적합하고 최고의 사랑 받는 힐링 공간이 될 것이다

- 1) 만동학교 복원으로 역사를 되살리고(기호 유학자들과 기독교 선교사가 지역유지들과 함께 근대식 학교를 세워 운영함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미래를 약속하며 애국애족 민족사상을 꿈나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귀감이 되었다.)
- 2) 카페 공간으로 조성하여 여행객과 지역민과 만남의 장소와 쉼터가 될 것이며
- 3) 집필관을 설립하여 문학인들의 집필과 교류의 공간으로 만들어 삶을 풍요롭게 하며
- 4)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진정한 힐링 공간이 되게 하며
- 5) 박범신 작가의 문학관을 설립하여 명소가 되게 한다

※ 강경이 낳은 박범신 작가 문학관 설립의 장소로 최적지이다.

- 위치: 지역 최초 사립만동학교 터로 유교와 기독교가 하나되어 근대식 학교를 세운 곳이다. 소중한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지역 근대역사의 뿌리를 찾는 것이며

- 사립만동학교와 문학관의 연관성 양호
- 박범신 문학비가 입구에 있음으로 문학관 위치가 적절하다
- 사계 김장생 강학소 임리정 옆이며 송시열 강학소 팔괘정과 연관성으로 문학동산으로 적합한곳
- 대지는 900여평이며 문화재 단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 돌산 전망대 및 문화재 거리까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함께 어울어짐으로 양호한 환경
- 박범신 신혼집 및 소설 첫 작품 집필한 집이 바라보이는 곳임
- 박범신 소설 대부분이 강경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적합한 곳임
- 100m에 황산대교 하상주차장 대형버스를 수십대 주차 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 작은 차는 바로 옆에 20여대 주차 가능함

6) 구체적인 계획

- 옛 사립 만동학교 복원-연계하여 카페 및 집필관(주방, 창고) 단층 60평 일부 스라부 옥상에 야외 카페 공간으로 이용
- 박범신 문학관 단층 100평 2층으로 계 200평
- 예술의 집 만동학교 60평 옥상 야외 40평 (건축 계260평)
- 야외 만남과 실링 공간으로 조성 (팽나무를 살리고, 언덕을 이용하여 문학관은 2층, 예술의 집은 단층으로) 옥상 야외 카페에서 강이 보이도록 건축한다.

7) 운영계획

- 강경 역사문화연구원과 번영회가 협력하여 강경역사관, 근대역사전시관, 기독교성지순례코스, 강경의 문화재, 역사문화공간 자원화 사업(근대건축물거리), 화폐박물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가이드 훈련과, 논산시 문화원 소속의 해설사들과 협력하여 근대역사문화도시 관광코스를 확정하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주민과 함께 운영체제를 갖춘다.
- 옛 만동학교를 역사관으로 복원하고 연계하여 예술의 집을 건축하고 집필관, 만남의 집 등으로 문학인 또는 주민들의 쉼터와 예술의 공간으로 가꾸어 간다.

10. 박범신 작가 문학관 설립

- 1) 위치:지역최초 사립만동학교 자리
- 2) 사립학교와 문학관의 연관성 양호
- 3) 박범신 문학비가 입구에 있음
- 4) 사계 김장생 강학소 임리정 옆이며 송시열 강학소 팔괘정과 연관성으로 문학동산 적합
- 5) 대지는 900여평이며 문화재 단지구역으로 지정됨
- 6) 돌산 전망대 및 문화재 거리까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함께 어우러짐으로 양호한 환경
- 7) 박범신 신혼집 및 소설 첫 작품 집필집이 바라보이는 곳임
- 8) 박범신 소설 대부분이 강경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적합한 곳임
- 9) 황산대교 하상주차장 대형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작은 차는 20여대 주차가능함
 - 이 시대에 최고의 소설가 박범신 작가의 문학관을 설립함으로 강경이 또 다른 이미지로 부상할 것이다. 머지않아 이 사업으로만 연간 10만명의 관광객 내방이 확실히 예상된다.
 - 바로 옆에 예술의 집을 세워 문학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및 쉼터로 가꾸어 힐링공간으로 가꾸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실례-1) 박경리 문학공원(원주)년 10만명, 통영 년 4만명.
 - 실례-2) 이효석 문학관 1개월 40만명 년 50-60만명.

11. 스승의 날 기념관 설립

1) 목적

- 강경은 스승의 날 발원지로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할 교육기반시설인 기념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스승존경과 제자 사랑을 구현할 기념관을 건립하여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진정한 교육의 지표를 세우고자함이라
- 미래 나라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주에 인재양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 각종 특별활동과 교육행사를 할 수 있는 기념관 및 다목적 강당으로 건립한다.

2) 활용 방안

(1) 학생사용

- 스승의 날 기념 행사 및 스승과 제자 사랑의 공간활용
- 학생 특별교육 및 강연회
- 각종 교내 실기대회 및 학예발표회
- 학생 자치활동 또는 동아리활동 공간
- 각종 특기 적성교육활동 공간

(2)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

- 이용 대상:지역주민, 학부모
- 이용방법:학생 이용과 중복되지 않게 활용
- 개방시간: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년, 중(토, 공휴일 포함)수시

3) 교육위원이 추진하며 지역 각 기관에서 협력한다.

12. 강경역사관 설립(구 한일은행)

- 강경에 3대시장 이 후 강경의 경제적인 생활상을 담아 후대에게 소중한 역사를 가르치고 보존하는 역사관(향후 역사박물관)을 설립하여 관광 자원화하고자 한다.

13. 근대역사전시관 설립

1) 위치

-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10-206 (대흥로 34번길 6)
- 전화: 041-745-0740-2 FAX:041-745-0741
- 꿈꾸는 동산:전시실: 1, 2층 200평. 교육실: 100평(200석) 총300평

2) 취지

- 강경은 조선시대 전국의 3대시장(평양, 강경, 대구)과 2대포구(원산, 강경)로 충청도의 근대역사 발상지이며 근대 상업도시로 발전하여 왔다.
- 현재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6.91Km²) 읍으로 근대건축물이 가장 많은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을 근대역사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나아가기 위한 뜻 있는 이들이 모여 강경역사문화 연구원을 2011년 4월 15일에 설립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등록문화재(324호) 구 한일은행에 강경역사관을 만들어 개관 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또한 근대역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보존하기에 힘써 왔으며 이번엔 꿈꾸는 동산에 근대역사 전시관을 설립하여 근대역사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역사의식을 새롭게 일깨우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3) 목적

- 한국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조명(역사적 사실을 조명)
- 한국인의 정체성 확인(역사의식에 대한 각성운동)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 대학입학 시험에 역사 과목을 필수로의 운동
- 강경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조명
- 근대역사 속의 기독교 역할
- 강경을 근대역사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관광자원화 한다.

4) 근대 역사전시관의 핵심 내용

- 1층
 - 일제강점기에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가?
 - 민족 독립을 위하여 국내에서, 해외에서 어떤 노력을 왔는가?
 - 민족 독립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피값으로 이루어 졌다
- 2층
 - 일제 강점기 기독교 문화운동이 무엇인가?
 - 6.25와 논산, 강경의 순국자, 순교자
 - 충청도의 근대역사 발상지 강경, 문화재, 근대건축물 분포도를 표시하였고 강경을 근대역사문화의 고장으로 가꾸어 관광자원화 한다.

14. 근대 일본인 생활도시 강경(일본인 역사박물관)

- 강경은 일찍이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던 작은 도시입니다. 특별히 한일병탄(韓日併呑)이전에 일본인들이 이곳에 와서 상권을 잡고 있었다. "1870년대 일본 옥구보 대장이 강경포구에 도착할 때 주민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환영하게 하였으며 1899년에는 일본상인 강수작은 이곳에 와서 해산물 도매상과 잡화상까지 개설하여 농상(農商) 부문에서도 침략을 감행하였다." 1905년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와 일본인 심상고등소학교를 상 강경에 세워 일본인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강경상업학교(江景商業學校)에도 일본인 학생들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일본 당국의 지원아래 농지를 다량 구입 1910년 이후 매년 1천호의 일본농민들에게 각종 혜택아래 한국의 각지

에 일본인들을 이식시켰다. 특히 강경은 1914년 통계를 보면 일본인이 442호와 1,638명이 살았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일본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경은 쌀 수탈 현장이며 근대 문물의 많은 교역이 있었던 근대 상업도시 이기에 더욱 일본인들이 많이 왕래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역사문화가 타지역보다 일찍 드러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의 생활한 흔적들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한다.

(1) 근대 일본인 역사 박물관

- 구 세무서장 관사를 일본인 작은 역사 박물관으로 설립하자. 현재 이 관사의 내부는 거의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 되었으며 특히 이 주택의 도코노마는 원형 그대로 일본인들이 살았던 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집으로 학자들로부터 검증받은 곳으로 이번에 강경역사문화연구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고 문화재 등재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 도코노마(床の間)란, 일본 주택 중 다다미방에서 볼 수 있는 장식의 하나이다.
- 도코노마는 일본식 방의 응접실의 벽면에 설치된 족자나 꽃꽂이를 장식하는 장소로,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마루는 판자를 대고 주위보다 한 단 높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에는 신을 모시기 위한 장소였지만, 무로마치시대(1392-1573)부터 아즈치모모야마시대(1573-1603)에 걸쳐 다다미방의 장식적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 응접실에 안내받으면 우선 도코노마를 감상한다. 도코노마가 있는 쪽이 윗자리이며, 상위의 손님이 앉는다. 도코노마에는 오르거나 앉거나 해서는 안된다. 작더라도 도코노마가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등 일본의 '住'의 문화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현대주택에서는 도코노마가 없는 방 배치가 많다.

(2) 근대 건축물 공공기관 및 개인 주택

- 근대 건축물거리(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중)
- 본정통(사주거리, 홍교리)
 -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거리 외적 모습은 보존 되어 있음
- 강경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대 개인 주택
 - 계속 발굴하고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인증마크로 표시하도록 하자

(3)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대건축물

- 구 한일은행 지점장 관사 이곳도 전문가들로 검증을 받고 문화재 등재신청을 진행중이다 이곳은 소유주가 살고있는 상태에 있으며 약간은 변형되었으나 가치 있는 건물로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구 한일은행(등록문화재 제324호)
- 구 연수당 한약방(등록문화재 제10호)
- 강경공립상고 관사(등록문화재 제322호)숙박체험시설로 개방하자
-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등록문화재 제60호)

(4) 충남 최초 수도시설(배수장:강경읍 채산리 산 333번지)

- 1917년 일본인들이 수돗물을 먹었으며 1924년에 강경 전체에 수돗물이 공급되었다

(5) 일본인 관광객 유치계획

- 백제문화재 담당 기관과 협력하여 일본인 관광객에게 홍보
- 일본 대사관을 통한 홍보
- 일본인 관광객 유치 관광회사를 통한 홍보
- 목포와, 군산 등 근대 도시와 네트워크로 협력
- 일본인 중에 강경상고 출신을 동원하여 홍보한다.
- 강경의 등록문화재 또는 근대건축물 중에 숙박 장소로 사용하자.
- 강경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초청하여 명예 시민권을 증여하자

15. 물 사랑 교육관(배수장 내) 충남최초 수도시설 활용

- 배수장에 “물 사랑 교육관”을 설립,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다. 물의 오염은 모든 생물의 위협과 결국은 인간생명의 위협이다.
 - 정수장을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였고 심사를 받았음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민 1명이 하루에 286리터(2012년 기준)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 중에 18억명이 물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국은 1990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유엔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물이 꼽혔다. 충남 최초 수도시설을 관람하고 물 사랑교육관에서 물 체험으로, 물 정화 과정과 물 오염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하여 물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배수장은(옛 정수장)
 - 충남 최초 수도시설로(1917년 시작-1924년 완공) 물의 관한 근대역사 현장이며 근대역사와 물에 관한 역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 물사랑 교육관을 설립하여 물에 대한 소중성과 물에 대한 영향력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한 교육을 하게 한다.
 - 물 사랑 교육관을 설립하여 각 읍면의 학교에 특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일반인에게도 물 사랑 학교를 개방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16. 삼청사(법원, 검찰, 경찰)강경내 신축이전.

- 강경의 역사적 숙원 사업이요 근대역사의 중요한 법조타운을 온 읍민과 논산시민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논산은 행정타운, 연무는 국방타운, 강경은 법조타운)

17. 주거지역 설정 서민 아파트건설 및 빌라건설 및 주택지 기반시설

- 서민아파트 건설(채산리, 산양리, 바이오 대학 입구쪽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

18. 교육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라(명문학교 복원, 옛 강경중학교, 상고)

- 교육 당국과 주민과 시청과의 함께 연구와 부단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

19. 미래 젓갈 상회 집중화(젓갈의 브랜드 살리고 바람직한 상거래)

- 강경의 젓갈 브랜드를 살리고 발전시키려면 특단의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다
- 젓갈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하여 뼈를 깎는 자정운동이 필요하다. 전국 어느 곳에든 내어놓을 만한 품질좋은 젓갈로 인식이 되도록 끊임 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20. 식당거리 조성(젓갈 상회와 식당의 상생방법, 지역발전 방향으로)

- 소위 먹자골목 음식 문화의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전통음식 또는 강경의 특색있는 음식개발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음식점이 필요하다.

21. 강경 역사문화 관광 업소 설립(읍사무소, 강경역, 또는 특정한 곳에 설립)

- 개인 또는 단체가 관광업소를 설립하여 강경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도록 한다

1) 강경 근대역사문화 탐방코스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 마차조합, 인력거조방, 밀차등을 대신하여 전기자동차로 탐방코스를 운행하도록
- 기념품 개발과 의미 있는 소품 개발 판매 가게 설치

2) 뱃길따라

- 강경-부여
- 강경-서천-군산 관광코스 개발
 - ※ 관광선 선착장 조성

3) 자전거 투어 출발지로 가꾸자(금강 코스 자전거 투어 인증스텝프 장소)

- 자전거로 부여 또는 군산쪽 투어를 실시하여 왕복코스나 때로는 숙박코스로 개발하고 지정하여 전국에 홍보 함으로 논산경제의 인프라를 구축 한다.(자전거 대여 및 투어를 준비하는 등을 완비하고)

22. 깨끗한 거리조성(꽃나무 심기 및 하천 뚝방길 가꾸기) 주민 참여요

- 고수부지 가꾸기 자동차 진입금지, 오토바이 집입금지 질서지키기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통일되고 계획된 뚝방길 또는 옥녀봉 채운 산 및 거리를 가꾸어 강경하면 떠오르는 꽃 나무 아름다운 거리를 연상케 한다.

23. 다같이 돌자 강경한바퀴(역사문화 탐방길 확정하고 축제 한마당)

- 근대역사 탐방코스를 확정하여(A-근대역사 및 문화재 탐방길, B-기독교 성지순례코스, C-근대 일본인 생활코스 D-유교문화 코스 중심.
- 강경 역사문화연구원 또는 번영회에서 강경읍민 또는 논산시민을 동원하여 매년 축제한마당을 벌리며 전국으로 강경을 알리고 근대역사문화 관광명품 도시로 가꾸어 나간다.

24. 강경포구 핵심지 가꾸기

- 테마공원앞에서 갑문까지 대흥천 맑은 물가두기 배 3척을 띄워 상,하역 재현과 배안에서 카페등 관광객 쉼터로 사용하기(옛 포구를 연상하여 3대시장 형성의 핵심을 이해 하도록 꾸며 나간다)
- 이곳은 노동조합, 한일은행, 구 다카하시정미소, 갑문, -옥녀봉으로 이어지고 -젓갈축제장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강경의 핵심이다. 즉 강경은 포구로 인한 도시가 형성되어진 것이며 갑문으로 인하여 전국 3대시장으로 발전하게 된 곳이다

25. 정신문화개발 보존(강경의 정신문화)

1) 기호유학의 충남 최초 강학소 임리정(도지정 문화재67호)과 팔괘정(도지정 문화재76호)

- 1626년(인조 4년)에 사계 김장생(1548-1631년)이 건립한 건물로 스승의 참된 정신으로 후학들을 가르쳤던 지역 최초의 강학소이며 또한 150m 떨어진 곳에 김장생의 제자 송시열(1607-1689년)이 1633년에 스승을 존경하여 스승과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팔괘정을 건립하여 제자들을 가르친 강학소이다. 이 아름다운 교육 정신은 먼 훗날 스승의 날 발원지의 원 뿌리라 할 수 있다.

2) 덕유정에서 출발한 지역최초 사립 만동학교

- 기독교 선교사 윌리엄스(F.E.C. Williams)가 1908년 6월 5일에 지역 유지들의 후원과 참여로 함께 덕유정에서 근대식 사립학교를 세워 만동학교라 하였으니 이 이름은 우암 송시열씨 만동사상에서 따온 이름으로 기독교와 유교가 협력하여 일제 강점기에 애국애족 민족사상을 가르쳤고 1913년에는 팔괘정에서 여 선교사 앨리스 샤프(Allicce H,Sharp. 사에리시)가 만동여학교를 세웠고 1921년에는 지역최초 유치원을 임리정에서 세워 발전하다가 1918년 황산동에 만동학교를 지역 유지들과 유학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근대식 교육에 힘썼던 보기도문 정신문화를 찾게 된다. 현재는 건물의 기초와 흔

적만 남아 있다. 속히 복원이 필요하다.

3) 최초 신사참배 거부지

- 1924년 10월 11일 강경소학교(현 중앙초등학교)김복희 여교사(강경성결교회 성도)와 학생 62명이 국내 최초 신사참배 거부를 일으킴으로 교사는 면직을 당하고 학생들은 퇴학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 민족의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후에 중앙초등학교 백회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4) 최초 일본역사 수업거부지(상해어린이단 사건)

- 일제가 강제로 창씨 개명을 강요했고 통감부에 의해 일본 말과 글을 가르쳤고 조선역사를 못 가르치게 하고 일본역사를 가르쳤다. 강경 성결교회 주일 학생 윤판석 중심으로 (상해어린이단)이 조직되어 1924년 이들이 일본역사 수업을 거부하다가 교장실에 불러 가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호통하며 꾸짖는 교장에게 컵을 들어 이마를 내리치고 자퇴하였다. 그 후 윤판석은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성결교회 장로가 되어 애국운동을 펼쳤고 사업을 하여 상해임시 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5) 충남 최초 노동조합(노동운동사)

- 1920년 당시 강경포구는 수산물 유통과 농산물과 공산품까지 상하역의 물동량이 대단하여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충남 최초의 노동조합이 형성하게 되었고 1925년에는 노동조합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35년에는 전국 부두 노동조합 강경지부 연맹체제로 바뀌어 발전하여 온 노동운동 역사를 보게 된다.
- 현재 이곳은 강경역사 홍보관으로 사용되며 노동운동사를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강경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이곳은 전국의 노동조합에 알려 건전한 노동운동과 근대역사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6) 충남 최초 대규모 삼일운동 (옥녀봉-상시장- 본정통)

- 1차:1919년 3월 10일 오후3시 엄창섭등이 주동하여 옥녀봉에 약500명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본정통을 경유하여 만세시위를 벌렸다 이 사건이 충남최초 대교모 만세운동이다.
- 2차: 3월 12일 강경 학생과 시민 수백명이 강경경찰서로 몰려가 구금한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하라 요구하며 시위를 벌렸다.
- 3차: 3월 20일 오후 5시경 옥녀봉에서 이근석, 송재기, 이봉석, 이근호 등과 주동하여 약 500명이 만세운동을 벌리며 상 시장을 거치면서 1천여명의 군중이 시위에 동참하였다.
- 4차:3월 31일 강경시내 한국인 상점 300여 점포가 상가 철시함으로 항쟁의 독립정신을 세우다.
- 5차:4월 1일 1천명의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벌렸고 일본인 상점에 방화
- 6차:4월4일500 여명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외경의 무차별 사격으로 이충규등 3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부상자가 생겼다.
- 7차:4월7일 군경이 삼엄한 경계 중에 야간에 산상 봉화 시위

7) 스승의 날 발원지(강경고등학교)

- 최초의 스승의 날 발원지로 강경여자 중,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사로 1958년부터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선생님 위로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회에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으며 1982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었다.

8) 최초 경로헌장비(경로사상)

- 송재 윤훈선생(1917-1973년)은 한국 최초로 강경에 경로당(만수재)를 1956년에 설립하여 칠월칠석에 해마다 경로잔치를 베풀어 오셨고 효자 효부를 표창하여 경로사상을 드높이셨고 또한 노인의 날 제정을 정부 요로에 청원하십시오로 경로 효친 사상을 함양하는데 노력하셨다. 이에 제10주년 송재 추모제에 그의 형제분들이 재정을 지원하여 정부에서 제정 공포한 경로헌장을 비에 새겨 옥녀봉에 기념비를 세우다.

9) 83위 강경 경찰서 순국경찰관

- 6.25전쟁 당시 지역과 경찰서 사수를 위하여 경찰서 소속 정성봉서장과 83명이 중무장하고 남하하는 공산군과 싸우다가 순국한 사건이다. 이 순국 정신이야말로 경찰 정신이요 애국 애족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정신이 될 것이다.

10) 66명의 순교자 병촌성결교회

- 6.25 전쟁 당시 퇴각하는 공산군들이 교인들을 모아 놓고 이틀간 66명을 칼과 몽둥이 죽창으로 무참히 살해하다. 성도들은 죽음 앞에 당당하게 기도와 찬송을 드렸고 오히려 공산군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였으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았다. 이에 병촌성결교회는 순교자 기념관과 안보교육관을 건축중에 있다.

11) 이종덕 목사 순교

- 이종덕 목사는 침례교 2대 감목으로 해방후 한국 구호위원장으로 봉사하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하는데 앞장서셨고 6.25당시 퇴각하는 공산군에게 끌려가 논산천과 강경천 삼각지 갈대밭에서 함께 끌려갔던 청년 2명은 도주시켜 살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셨다. 그 현장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다.

12) 안순득속장 애국애족 사상(애국부인회 활동)

- 안순득 여사는 충북 괴산 출신이며 정신여고 출신으로 애국부인회 강경지회장으로 교회의 속장으로 봉사하다가 6.25 당시 공산군에게 회개하라 “너희는 망한다”라고 호통치며 책망하다가 공산군에게 끌려가 바이오대학 뒷산(공동묘지)에서 순교 당하셨다

13) 한완봉(세례명 방지거)의 반공사상

- 한완봉은 상경하여 통신중학교에 다니던 중 16세때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와 전단을 작성하여(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천벌을 받는다, 비록 놈들의 밑에서 고생은 하고 있으나 희망을 잃지 말자 등)주민들에게 돌렸다. 결국 체포되어 옥녀봉 밑에서 총살을 당하다. 현재 채운산정에 그의 반공사상을 기리는 묘가 있다.

14) 이화교회(설인수 손정석 이진팔)3인순교

- 6.25때 위의 세분들은 예수믿고 애국운동을 한다고 인민군과 치안대원에게 공동묘지로 끌려가 옷벗김을 당하고 인피를 벗김 당하는 고문과 결국은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 순교를 당했으나 논산시 관촉동 도로변 자유수호순국지사 위령비 순국자 2104명의 명단에 세분의 이름도 새겨지다.

15) 항일투쟁으로 애국애족 정신을 실천에 남다른 곳

- 신사참배 최초 거부지
- 충남 최초 삼일 만세운동(대규모500명)이 일어난 곳-옥녀봉 1919년3월10일, 20일
- 최초 일본 역사 수업 거부지
- 일제에 무언의 항의로 상가 철시운동 1919년 3월 31일
- 애국부인회 활동 독립군 군자금 모금

16) 경로사상의 철두 철미한 교육장소(송재 윤훈 선생의 숙원이요 사상)

- 1956년 전국최초로 설립된 만수재(경로당)
- 1983년 경로헌장 비
- 노인의 날 제정 건의
- 칠월 칠석날 경로잔치

17)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 1925년 노동조합 건축하여(목조 2층으로 1층은 사무공간 2층은 2개의 방으로)
- 강경 자체 단일조직으로 배로 인한 상, 하역에 동원되는 노조들의 조합으로 설립됨

18) 스승의 날 발원지

19) 투철한 반공 정신과 애국 애족의 순국자의 고장

- 6.25때 83위 순국 경찰관 순국지 강경경찰서

- 6.25때 66명 순교한 병촌 성결교회
- 6.25때 중앙 감리교 안순득 속장의 순교
- 6.25때 침례교 이종덕 목사(침례교 감목(총회장) 순교
- 6.25때 반공소년 강경천주교회 한완봉(방지거) 순교
- 6.25때 이화감리교회 3인(설인수 손정석 이진팔)순교
- 국민의례-하기식 때 애국가가 들려오면 길가다가도 정지하고 차렷했던 곳

※ 개발 후 예상 관광객 연간 61만명

- 기독교성지순례코스 및 근대역사전시관-10만명
-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근대건축물 거리조성)추진-10만명
- 논산경찰서 성역화(충남근대역사 박물관, 83위 순국경찰관 추모관)-10만명
- 예술의 집 (박범신작가문학관, 유한근 작가 문학의 집)-10만명
- 강경역사관 및 근대역사 탐방코스-10만명
- 스승의 날발원지 및 스승존경관 및 물 사랑교육관-10만명
- 근대 일본인 생활 코스,(일본인 역사박물관, 구 세무서장관사, 구 식산은행 지점장관사, 구 연수당한약방, 강경상고관사, 중앙초등학교강당, 충남최초수 도시설 배수장 등) 1만명

■ 부록 2

근대도시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마을 지정 청원

- 1-취지
- 2-목적
- 3-실례(모로코 고대도시 페스)
- 4-지정 후 기대
- 5-강경읍의 개요
- 6-강경은 어떤 곳인가
- 7-강경 현재의 근대 건축물
- 8-강경의 정신문화
- 9-사단법인 강경역사문화연구원
- 10-출판물 및 논문 및 관련 자료

2014년 6월 30일

사단법인 강경역사문화연구원

기안처:강경역사문화연구원 기획실 논산시 강경읍 계
백로 167번길 50 전화:041-745-3444

근대도시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마을 지정 청원

1. 취지

- 강경은 조선의 3대시장(평양, 강경, 대구)의 하나로 근대상업도시로 번창하였으며 2대 포구로(원산과 강경) 널리 알려진 도시입니다.
- 근대도시하면 부산, 인천, 목포, 군산, 강경입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 목포는 도시를 개발 하면서 근대역사 건축물들이 거의 회손이 되었고 군산은 해양공원 쪽으로 근대 건축물들을 이동시키며 상당부분 회손되었다고 본다.
- 그러나 강경은 개발이 늦어지면서 상당부분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본다
 - 그래서 근대역사의 소중성을 고려하여 회손 또는 소실 되기 전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바 강경을 근대역사문화 마을로 지정하여 근대역사문화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을로 꾸며 가고자 하는 것이다

2. 목적

- 온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근대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 전국에서 근대건축물이 제일 많은 강경을 잘 개발하고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 암울했고 쓰라린 고통과 서러움을 당했던 근대사를 온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족의식과 애국 애족하는 국민으로 국가관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마을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고자 함이라

3. 실례 모로코 고대도시 페스

- 모로코의 고대도시 페스는 고대 상업 도시로서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 되어 현재는 외곽에 차를 세우고 안내를 따라 관광할 수 있다. 불편함과 찾기 힘든 골목길이 오히려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강경은 아직도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여 근대역사문화마을로 가꾸어 가자는 것이다.

4. 지정 후 기대

- 보다 체계적인 관광코스를 지정하여 관광자원 할 수 있다
 -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및 근대인들의 생활현장 소개
 - 유교문화 단지
 - 기독교성지순례코스
 - 일본인 생활문화 코스
-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마을과 젓갈의 고장으로 홍보 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의 근대도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 현재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정 후에는 급격한 증가가 소요됨
- 여기에 따른 숙박시설과 먹거리 준비와 기념품등의 다양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함
- 이는 경제적 효과와 논산시의 새로운 이미지가 세워질 것이다.

5. 강경읍의 개요

- 강경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되어 13리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읍이다

- 면적:6,91km²
- 현재인구: 2014년 6월 15일 10420명 4777호이다

6. 강경은 어떤 곳인가?

-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평양, 강경, 대구)이며 2대 포구(원산, 강경)로 근대 상업도시로 발전해 왔다. 포구가 발달하여 일찍이 근대문화가 꽃을 피웠고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근대역사 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그러나 군산 하구 쪽이 막히고 육로가 발달함에 따라 강경도 쇠퇴하였고 발전이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강경은 아직도 근대 건축물이 많아 소중한 근대문화를 볼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원래 근대도시인 부산과 인천, 목포가 발전하며 근대건축물들이 회손이 되었고 군산은 한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회손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경은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근대 건축물이 제일많은 도시가 된 것이다. 강경의 근대건축물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7. 강경 현재의 근대 건축물

1)등록문화재

-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등록문화재 제324호)
 - 강경읍 서창리 51-1번지
- 구 노동조합(등록문화재 제323호)
 - 강경읍 염천리 20번지
- 구 연수당 한약방(등록문화재 제10호)
 - 강경읍 중앙리 88-1번지
- 구 강경성결교회(등록문화재 제42호)
 - 강경읍 북옥리

- 구 강경공립상고 관사(등록문화재 제322호)
 - 강경읍 남교리 1번지
- 중앙초등학교 강당(등록문화재 제60호)
 - 강경읍 중앙리 155번지
- 강경화교학교(등록문화재 제337호)
 - 강경읍 황산리 34-1번지
- 갑문(등록문화재 제 호 2014년 7월 지정)
 - 강경읍 서창리 149(천) 및 황산리 198(천)
- 배수장(정수장)(등록문화재 제 호 2014년 7월 지정)
 - 강경읍 강경로 66번길 100-11번

2) 향토유적

- 덕유정(향토유적 제1호)
 - 강경읍 동흥리 47번지
- 최초 침례교 예배지(향토유적 제38호)
 - 강경읍 북옥리136번지
- 해조문(향토유적 제24호)
 - 강경읍 북옥리
- 순국경찰관 합동묘지(향토유적 제33호)
 - 논산시 등화동

3) 예비 등록문화재 급의 소중한 근대건축물

- 구 세무서장관사
- 구 식산은행 지점장관사
- 서용선 고택
- 미곡창고

- 김철수의 집(김용원가옥)
- 강경천주교회
- 조선산업주식회사 윤길중사장 주택(개인주택, 형제전기 사장 주택)
- 강경역장 관사
- 남교리-계백로 15-13(개인주택)

4) 등록문화재 동산부분 신청준비

- 구 한일은행지점 금고
- 덕유정 기록물
- 덕유정 소유 용추
- 강경역 열차시간표
- 구 세무서장 관사 금고
- 강경중앙초등학교 앨범

5)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근대건축물거리)

- 점포 주택-중앙리 179-3
- 주택-중앙리180-2
- 점포 주택-중앙리29-2, 13
- 점포 주택-중앙리 29-18
- 영업소 주택(화신농약사)-중앙리31-2
- 영업소 주택-중앙리34-2
- 영업소 주택-중앙리9-4
- 영업소(통일식당)-중앙리53-1
- 영업소(대동전기상회)-서창리28-1
- 점포 주택 창고-중앙리40-2
- 옛 비단집

- 옛 십오당
- 옛 금강당
- 옛 오복상회
- 옛 한성백화점, 흥인병원

6) 본정통 근대건축물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64-2
- 홍교리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65-1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64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62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60-7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58-1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54-4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51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48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31-1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41
- 홍교리-옥녀봉로 24번길 17
- 홍교리-계백로219번길44-2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33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35

- 홍교리-계백로219번길 26
- 홍교리-계백로213번길

7) 그외 산재된 근대건축물 90여채

8) 강경에 현재 근대건축물은 150여 개가 된다

- 그러므로 강경은 근대역사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다.

8. 강경의 정신문화

1) 기호유학의 충남 최초 강학소 임리정(도지정 문화재67호)과 팔괘정(도지정 문화재76호)

- 1626년(인조 4년)에 사계 김장생(1548-1631년)이 건립한 건물로 스승의 참된 정신으로 후학들을 가르쳤던 지역 최초의 강학소이며 또한 150m 떨어진 곳에 김장생의 제자 송시열(1607-1689년)이 1633년에 스승을 존경하여 스승과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팔괘정을 건립하여 제자들을 가르친 강학소이다. 이 아름다운 교육 정신은 먼 훗날 스승의 날 발원지의 원 뿌리라 할 수 있다.

2) 덕유정에서 출발한 지역최초 사립 만동학교

- 기독교 선교사 윌리엄스(F.E.C. Williams)가 1908년 6월 5일에 지역 유지들의 후원과 참여로 함께 덕유정에서 근대식 사립학교를 세워 만동학교라 하였으니 이 이름은 우암 송시열씨 만동사상에서 따온 이름으로 기독교와 유교가 협력하여 일제 강점기에 애국애족 민족사상을 가르쳤고 1913년에는 팔괘정에서 여 선교사 앨리스 샤프(Allicce H,Sharp. 사에리시)가 만동여학교를 세웠고 1921년에는 지역최초 유치원을 임리정에서 세워 발전하다가 1918년 황산동에 만동학교를 지역 유지들과 유학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근대식 교육에 힘썼던 보기도문 정신문화를 찾게 된다. 현재는 건물의 기초와 흔적만 남아 있다. 속히 복원이 필요하다.

3) 최초 신사참배 거부지

- 1924년 10월 11일 강경소학교(현 중앙초등학교)김복희 여교사(강경성결교회 성도)와 학생 62명이 국내 최초 신사참배 거부를 일으킴으로 교사는 면직을 당하고 학생들은 퇴학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 민족의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후에 중앙초등학교 백회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4) 최초 일본역사 수업거부지(상해어린이단 사건)

- 일제가 강제로 창씨 개명을 강요했고 통감부에 의해 일본 말과 글을 가르쳤고 조선역사를 못 가르치게 하고 일본역사를 가르쳤다. 강경 성결교회 주일 학생 윤판석 중심으로 (상해어린이단)이 조직되어 1924년 이들이 일본역사 수업을 거부하다가 교장실에 불려 가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호통하며 꾸짖는 교장에게 컵을 들어 이마를 내리치고 자퇴하였다. 그 후 윤판석은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성결교회 장로가 되어 애국운동을 펼쳤고 사업을 하여 상해임시 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5) 충남 최초 노동조합(노동운동사)

- 1920년 당시 강경포구는 수산물 유통과 농산물과 공산품까지 상하역의 물동량이 대단하여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충남 최초의 노동조합이 형성하게 되었고 1925년에는 노동조합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35년에는 전국 부두 노동조합 강경지부 연맹체제로 바뀌어 발전하여 온 노동운동 역사를 보게 된다.
- 현재 이곳은 강경역사 홍보관으로 사용되며 노동운동사를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강경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이곳은 전국의 노동조합에 알려 건전한 노동운동과 근대역사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6) 충남 최초 대규모 삼일운동 (옥녀봉-상시장- 본정통)

- 1차:1919년 3월 10일 오후3시 엄창섭등이 주동하여 옥녀봉에 약500명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본정통을 경유하여 만세시위를 벌렸다 이 사건이 충

남최초 대교모 만세운동이다.

- 2차: 3월 12일 강경 학생과 시민 수백명이 강경경찰서로 몰려가 구금한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하라 요구하며 시위를 벌렸다.
- 3차: 3월 20일 오후 5시경 옥녀봉에서 이근석, 송재기, 이봉석, 이근호 등과 주동하여 약 500명이 만세운동을 벌리며 상 시장을 거치면서 1천여명의 군중이 시위에 동참하였다.
- 4차: 3월 31일 강경 시내 한국인 상점 300여 점포가 상가 철시함으로 항쟁의 독립정신을 세우다.
- 5차: 4월 1일 1천명의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벌렸고 일본인 상점에 방화
- 6차: 4월 4일 500 여명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외경의 무차별 사격으로 이충규등 3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부상자가 생겼다.
- 7차: 4월 7일 군경이 삼엄한 경계 중에 야간에 산상 봉화 시위

7) 스승의 날 발원지(강경고등학교)

- 최초의 스승의 날 발원지로 강경여자 중,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사로 1958년부터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선생님 위로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회에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으며 1982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었다.

8) 최초 경로헌장비(경로사상)

- 송재 윤훈선생(1917-1973년)은 한국 최초로 강경에 경로당(만수재)를 1956년에 설립하여 칠월칠석에 해마다 경로잔치를 베풀어 오셨고 효자 효부를 표창하여 경로사상을 드높이셨고 또한 노인의 날 제정을 정부 요리에 청원하십시오로 경로 효친 사상을 함양하는데 노력하셨다. 이에 제10주년 송재 추모제에 그의 형제분들이 재정을 지원하여 정부에서 제정 공포한 경로헌장을 비에 새겨 옥녀봉에 기념비를 세우다.

9) 83위 강경 경찰서 순국경찰관

- 6.25전쟁 당시 지역과 경찰서 사수를 위하여 경찰서 소속 정성봉서장과 83명이 중무장하고 남하하는 공산군과 싸우다가 순국한 사건이다. 이 순국 정

신이야 말로 경찰 정신이요 애국 애족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정신이 될 것이다.

10) 66명의 순교자 병촌성결교회

- 6.25 전쟁 당시 퇴각하는 공산군들이 교인들을 모아 놓고 이틀간 66명을 칼과 몽둥이 죽창으로 무참히 살해하다. 성도들은 죽음 앞에 당당하게 기도와 찬송을 드렸고 오히려 공산군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였으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았다. 이에 병촌성결교회는 순교자 기념관과 안보교육관을 건축중에 있다.

11) 이종덕 목사 순교

- 이종덕牧사는 침례교 2대 감독으로 해방후 한국 구호위원장으로 봉사하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하는데 앞장서셨고 6.25당시 퇴각하는 공산군에게 끌려가 논산천과 강경천 삼각지 갈대밭에서 함께 끌려갔던 청년 2명은 도주시켜 살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셨다. 그 현장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다.

12) 안순득속장 애국애족 사상(애국부인회 활동)

- 안순득 여사는 충북 괴산 출신이며 정신여고 출신으로 애국부인회 강경지회장으로 교회의 속장으로 봉사하다가 6.25 당시 공산군에게 회개하라 “너희는 망한다”라고 호통치며 책망하다가 공산군에게 끌려가 바이오대학 뒷산(공동묘지)에서 순교 당하셨다

13) 한완봉(세례명 방지거)의 반공사상

- 한완봉은 상경하여 통신중학교에 다니던 중 16세때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와 전단을 작성하여(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천벌을 받는다, 비록 놈들의 밑에서 고생은 하고 있으나 희망을 잃지 말자 등)주민들에게 돌렸다. 결국 체포되어 옥녀봉 밑에서 총살을 당하다. 현재 채운산정에 그의 반공사상을 기리는 묘가 있다.

14) 이화교회(설인수 손정석 이진팔)3인순교

- 6.25때 위의 세분들은 예수믿고 애국운동을 한다고 인민군과 치안대원에게

공동묘지로 끌려가 옷벗김을 당하고 인피를 벗김 당하는 고문과 결국은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 순교를 당했으니 논산시 관촉동 도로변 자유수호 순국지사 위령비 순국자 2104명의 명단에 세분의 이름도 새겨지다.

15) 항일투쟁으로 애국애족 정신을 실천에 남다른 곳

- 신사참배 최초 거부지
- 충남 최초 삼일 만세운동(대규모500명)이 일어난 곳-옥녀봉 1919년3월10일, 20일
- 최초 일본 역사 수업 거부지
- 일제에 무언의 항의로 상가 철시운동 1919년 3월 31일
- 애국부인회 활동 독립군 군자금 모금

16) 경로사상의 철두 철미한 교육장소(송재 윤훈 선생의 숙원이요 사상)

- 1956년 전국최초로 설립된 만수재(경로당)
- 1983년 경로헌장 비
- 노인의 날 제정 건의
- 칠월 칠석날 경로잔치

17)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 1925년 노동조합 건축하여(목조 2층으로 1층은 사무공간 2층은 2개의 방으로)
- 강경 자체 단일조직으로 배로 인한 상, 하역에 동원되는 노조들의 조합으로 설립됨

18) 스승의 날 발원지

19) 투철한 반공 정신과 애국 애족의 순국자의 고장

- 6.25때 83위 순국 경찰관 순국지 강경경찰서
- 6.25때 66명 순교한 병촌 성결교회
- 6.25때 중앙 감리교 안순득 속장의 순교

- 6.25때 침례교 이종덕 목사(침례교 감목(총회장) 순교
- 6.25때 반공소년 강경천주교회 한완봉(방지거) 순교
- 6.25때 이화감리교회 3인(설인수 손정석 이진팔)순교
- 국민의례-하기식 때 애국가가 들려오면 길가다가도 정지하고 차렷했던 곳

9. 강경역사문화연구원

- 강경역사문화연구원은 수순한 민간 단체로서 강경의 역사문화의 소중성을 알고 이것을 개발하고 보존하여 이 소중한 문화를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만든 단체이다
- 2011년 4월 15일에 창립하여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하여 왔다

10. 사업보고

1) 강경역사관 개관

- 2012년 9월 4일-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에 강경역사관 개관했다. 삼대시장 이후 강경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왔는가? 강경에 있었던 생산품과 각 가정에서 사용했던 가전제품등을 소개하며 강경의 문화재와 그 시대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근대역사전시관 개관

- 2013년 10월 6일-근대역사를 정리하여 정치적인 압박과 인권유린 자원수탈 근대화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과 의료 국내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 등을 담은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 위치: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10-206
- 전화: 041-745-0740-2 FAX:041-745-0741

- 꿈꾸는 동산:전시실: 1, 2층 200평. 교육실: 100평(200석) 총300평

3) 목적

- 한국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조명(역사적 사실을 조명)
- 한국인의 정체성 확인(역사의식에 대한 각성운동)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 대학입학 시험에 역사 과목을 필수로의 운동
- 강경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조명
- 근대역사 속의 기독교 역할
- 강경을 근대역사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관광자원화 한다

4)강경에 관한 책자 출판

- 2010년11월10일:강경기독교성지순례코스(충남타운, 윤석일의 4인공저)
- 2010년 11월 10일:근대역사문화의 보고(寶庫)강경 출판(충남타운 윤석일저)
- 2013년 1월 7일 근대역사보고 개정판 출판기념회(강경읍사무소 황명선 시장 외 지역주민 다수 참석)
- 2013년 10월 28일 강경의 역사와 문화(정현수 저)출판기념회(강경역사관 황명선시장외 주민 다수 참석)

5)문화재 조사 사업

- 구 세무서장 관사
- 구 한일은행 관사
- 배수장(정수장)
- 갑문
- 서웅선 고택
- 미곡창고 조사완료하여 등재신청하다

※ 4월 18일 문화재청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다

6)연구발표 및 학술 세미나 용역발표회

- 2011년 5월 12일=공주대학교 이예준 교수 특강[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강경제일감리교회에서 역사문화연구원 및 충남 역사문화원 오석민 관장 참석)
- 2011년 7월 6일=[역사도시 강경어떻게 가꾸어갈까?]포럼(강경읍사무소)충남 발전연구원 주최 역사문화연구원 및 강경지도자 각 리장단 참석
- 2011년 12월 22일-[덕유정과 사회활동] 논문발표(강경읍사무소)송현경박사 (한남대 인문학술원 전임연구원) 연구원 및 읍민 지도자 다수 참석
- 2012년 1월 13일-[강경 3대시장을 아시나요?] 장소:충남불고기, 발표자: 박송규 위원
- 2012년 1월18일=[강경 근대역사문화 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최종보고회] (강경읍 역사문화연구원 및 지역지도자 참석 의견 교환과 본정통을 포함시킬 것 건의
- 2012년 5월 21일-[송재 서재필 선생 연구 논문 발표] 후원 장소:논산문화원 발표자:홍선표 박사(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전임연구원)
- 2012년 11월 2일=[논산경찰서 성역화 및 대둔산 지구전투] 연구 논문 발표회 시청상황실, 발표자 송현강 박사 (참전전우회, 유가족, 번영회, 역사문화연구원)
- 2012년 11월 23일=논산경찰서 대둔산전투에대한 공청회(참전전우회, 지역지도자 및 송현강박사 참여) 강경꿈꾸는 동산 4층
- 2014년 3월 2일=강경 삼일 만세운동 학술발표회

7)강경역사문화학교

- 7월10일-8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7시30분에 강경읍사무소 3층에서 학교를 개교한다 온 읍민이 강경역사문화를 배우고 자랑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대역사문화의 보고를 함께 가꾸어 가고자 함이다

11. 강경역사문화연구원의 비전

-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마을 지정 전국에 유일한 근대도시가 되게하는 것
- 강경을 전국읍에서 등록문화재가 제일 많은 도시로 지정하도록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일
- 강경에 오면 온 종일 근대문화에 대하여 볼 거리가 있는 마을로 온 읍민이 꾸며 나가는 것
- 강경을 근대역사문화 관광명품 도시로 만드는 것(볼 거리, 먹거리, 구매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로)
- 강경을 테마별로 관광코스를 만든다
 - 근대문화코스
 - 상업문화코스
 - 유교문화코스
 - 성지순례코스
 - 일본인 생활문화코스
- 강경역사문화학교를 통하여 전 읍민의 의식을 개발하여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마을로 가꾸어간다
- 주민이 하나되어 주민이 주도하는 명품관광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전 읍민이 각 분야별로 참여 하도록 한다.

■ 부록 3

강경역사문화학교

1. 취지

- 강경의 근대역사문화는 강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강경역사문화 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을 통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잘 보존하여 강경을 근대역사문화의 명품도시로 발전시키며 삶에 질 향상과 강경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로 “강경역사문화 학교”를 개설하였다.

2. 목적

- 논산의 역사문화 발상지 강경의 역사문화를 내가 먼저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 강경역사 문화의 보고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함이요
-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올바르게 강경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자 함이며
- 강경역사문화 창달을 통하여 젓갈시장과 함께 관광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이기 도하다

3. 입학 자격

- 강경 역사문화를 사랑하며 알고자 하는 모든 남녀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4. 등록

- 원서접수=6월10일-6월 28일까지

- 원서 접수처=강경역사관(구 한일은행지점 전화745-3444)
-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정 현 수

5. 강의 장소

- 강경읍사무소 3층 회의실

6. 개강일

- 2014년 7월 10일

7. 학제

- 7월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7시 30분-8시 30분 5주간 강의
- 8월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5시-6시30분 3주간 현장학습

8. 강의 내용 및 강사

- 7월10일(목)-근대역사문화 유산의 소중성-----류재협 논산문화원장
- 7월17일(목)-강경의 문화재-----김무길 향토사학자
- 7월25일(목)-강경의 정신문화-----오석민 충남역사박물관장
- 7월31일(목)-강경의 기독교성지순례코스-----윤석일 기획실장
- 8월 7일(목)-강경과 문학-----권선옥 연무고등학교 교장
- 8월 9일(토)-현장학습-----류재협 논산문화원장

- 8월16일(토)-현장학습-----김무길 향토사학자
- 8월23일(토)-현장학습-----윤석일 기획실장

9. 특전

- 수료자 수료증 수여
- 수료자는 별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강경역사문화 가이드로 활동하도록 협력한다.

10. 문의

- 사단법인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전화:745-3444,
- 주소: 강경읍 계백로 167번길 50 강경역사관(구 한일은행지점)
- 후원: 논산문화원, 강경읍, 관광사업단
- 주최: 논산시 주관: 사단법인 강경역사문화연구원

NO:역사문화 14-5

수 신:강경읍 각 기관 및 각 봉사단체 및 리장
제 목:강경역사문화학교 개교에 관하여

강경을 사랑하며 강경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각 기관과 봉사단체 및 각 리장단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위에 크신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경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경역사문화학교를 세워 강경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널리 광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래-

일시:2014년 7월 10일 오후 7시 30분-개강-8월 23일 종강

장소:강경읍사무소 3층 회의실(강의 시만)

원서접수:6월 17일-6월 28일까지 오전 10시-오후5시(월요일은 제외)

접 수 처:강경역사문화연구원(구 한일은행 지점 전화:745-3444)

자 격:강경 역사문화를 알고자 하는 모든 남녀 노소 누구나 환영

학 제:7월10일-매주 목요일 저녁7시30분-8시30분 5주간 강의

8월9일-매주 토요일 오후 5시-6시30분 3주간 현장실습

특 전:1)수료자에게 논산시장의 수료증 수여

2)소정의 과정을 통하여 강경역사문화 가이드 자격증 수여

문 의:강경역사문화연구원 전화: 745-3444, 휴대폰:

주최: 논산시 후원: 논산 문화원 주관: 사단법인 강경역사문화연구원

2014년 6월 12일

사단법인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정 현 수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

(주민 자율의 강경을 역사도시 만들기 구상)

안근철 연구원(지역활성화센터)

한상욱 부장(충남발전연구원)

목 차

I. 강경의 현실과 반성 / 논의의 전제	57
II. 강경의 미래 모습 / 지향점	58
III. 강경의 과거와 미래	60

I. 강경의 현실과 반성 / 논의의 전제

1. 강경의 현실(긍정-부정-과제)

-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읍(규모), 전국적 인지도의 젓갈(산업), 활용가능한 확장성의 한계(토지이용), 밀집된 역사문화자원(잠재력)
 - ① 우리나라 전국 읍지역중 가장 작은 면적 : 7.01km²(행정리 13, 자연부락 28)
 - ↔ 읍 승격(1931),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왜 확장, 확대, 발전하지 못하였을까?
 - ☞ 성장 동인의 발굴 및 점진적 육성
 - ② 젓갈산업 : 강경읍 지역경제의 지탱 부문. 증가하는 점포(정체기).
 - ↔ 산업적 기능 확대(세계적인 명품), 계획적 관리(품질관리), 젓갈산업의 지속 확대성은?
 - ☞ “강경의 미래 이미지 = 젓갈도시”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속가능한 정체성 정립
 - ③ 토지이용 및 경관: 도시적 토지이용의 제약 및 확장 한계
 - ↔ 계획적 기능·시설의 지속가능성은? 민간영역의 무질서한 건조환경?
 -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 / 앞으로 누가 강경읍에 살것인가?
 - ④ 밀집된 역사문화자원 :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테마성의 자원
 - ↔ 보전·활용에 대한 인식(재산권 보상), 소유자와의 마찰, 자원, 운영·관리의 책임(경제적 부담)
 - ☞ 주민의의식 전환(니보다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의 발견.

2.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

- 고령화 지속, 인구성장의 한계
- 장치산업, 대규모 건설 → INBEC산업(지식산업)으로 전환
- 경제 총량의 확대, 규모의 경제 → 삶의질 우선, 규모의 경제+연계의 경제
- 외연적 확장, 대규모 개발(외생적 발전) → 도시공간의 In-fill, 내발적 발전
- 효율성·경제성 중시, 경제적 균등화 → 형평성, 지속가능성, 기회의 균등화
- 하향식(Top down) → 상향식(Bottom up)

Ⅱ. 강경의 미래 모습 / 지향점

1.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

- ① 강경은 무엇 때문에 흥했고, 무엇 때문에 쇠퇴(중)하는가?
 - 수운에 의한 상업도시로의 성장,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 ※ 물산의 이동·집산 → 인구의 밀집 → 경제적 부의 축적 → 파생문화의 확장(유흥, 종교, → 새로운 조직 형성·권력의 집중 → 공공기관의 개입 및 확대
 - 현대 : 중앙정책 흐름에 대한 대응력 미흡, 교통 수단의 전환(수운→육운) 및 발달과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강경읍 기능의 적응 미흡
- ② 강경에 자리잡은 특색있고, 저류에 흐르는 문화는 무엇인가?
 - 서민문화 : 관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발전한 도시임
 - 상업문화 : 물자의 중계로 인한 이익 취하고, 문화를 파급시킨 도시임
 - 공동체문화 : 조직 및 영역 확대를 위한 의기투합 및 공동체 형성
 - 애국·충의의 문화 : 절대적 가치관의 보급·확대(종교), 불의에 대한 불타협
- ③ 근대부터 현재까지 강경 발전으로 인한 수혜자가 극소수이지는 않았는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 현재, 강경 경제의 지탱부문은 젓갈산업이고, 젓갈산업 종사자와 비종사자간의 대립
 - 경제적 수혜의 양극화, 계층간의 양극화, 세대간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
- ④ 향후 강경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은?
 - 일반적인 읍급 도시와 비교시 농림어업의 지원을 받고,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도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고부가가치 지식경제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 미래의 강경의 지역경제를 지탱할 자원은? 사람! 또 무엇?
- ⑤ 향후 강경의 주인은 누구인가?
 - 고령화의 지속에 따른 지역발전의 수혜적 대상자는?
 -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이탈로 인한 활력 유지에 대응한 주체는 누구?

2. 지향점

<p>방향</p>	<p>강경발전을 위한 미래의 도시상을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 그리되, 강경읍이 보유하고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성장동력화 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함께 더불어가는 여건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p>		
<p>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자발적 참여 기회 보장 • 나보다는 지역사회 우선 • 미래상의 공유 • 지역사회 분열 요인의 공동 대응 •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 		
<p>비전</p>	<p>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p>		
<p>목표</p>	<p>살아있는 역사문화</p>	<p>활력있는 지역 경제</p>	<p>더불어 번영하는 지역공동체</p>
<p>추진 전략</p>	<p>역사가 살아숨쉬는 도시만들기</p>		<p>문화가 흐르는 지역(공동체) 만들기</p>
	<p>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하기</p>		<p>뿌리깊은 지역공동체 만들기</p>

Ⅲ. 강경의 과거와 미래

함께 만드는 근대 역사문화도시, 강경

1. 강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 강경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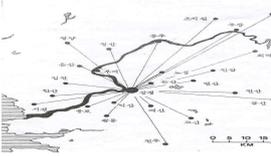
- 17세기초 황망한 습지인 곳에 김씨(金氏)부부가 옥녀봉 부근의 금강연변에 최초로 이주하여 주거지로 정착되었다고 구전
- 1500년대 말 김장생 선생이 문하생을 가르침, 문인취락 형성
- 영정조시대부터 중계 하항으로서 기능이 활성화되어 조선 3대 시장으로 발전, 강경포구는 전국 2대 포구(원산과 함께)로 발전, 각종 해산물과 공산품의 교역
- 내륙교통 발달(경부선 1905, 호남선 1914)로 쇠퇴(강경의 역사와 문화, pp.54-56), 6.15 시가지 전투와 폭격으로 70% 이상의 근대 건축물과 문화유산 파괴
- 일제강점기: 미곡수탈기지, 충남 최초 노동조합운동, 항일운동(최초 신사참배 거부, 최초 일본역사수업 거부, 충남 최초 대규모 만세운동)
- 한국전쟁(6.25) 83위 강경경찰서 경찰관 순국, 66명의 병춘성결교회 교인 순교, 이종덕목사 순교, 안순득여사 순교, 한완봉의 반공, 이화교회 교인 3인 순교

○ 강경의 역사적 특징

- 상업도시 : 강경은 중계하항으로, 염장문화의 젓갈로 지속 성장한 도시
- 서민문화 : 계획적인 도시가 아닌 자연발생적인 도시이며, 장시문화와 결합된 전형적인 서민문화를 보유
- 애국 충의문화 :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타협하는 애국·충의의 문화
- 전국 최초 다수 : 기호유학의 최초 강학소(임리정), 지역 최초 사립학교(만동학교, 1908), 충남 최초 노동조합 경성 및 노동조합 운동(1920-), 신사참배 최초 거부지, 충남 최초 만세운동, 최초 일본역사 수업 거부, 스승의 날 발원(강경고등학교, 1958), 전국 최초 경로당(만수제, 1956), 경로현장비(1983)

○ 강경의 대표 역사문화자원

- 내용 : “근대도시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마을 지정 청원”에서 정리한 주요 자료와 사진 등을 소개

조선					
	최대상권(1903)	소금상권(1905)			
일제					
	1920년대 강경 서창포구	1930년대 강경포구	1930년대 강경역	1920년대 강경 상시장	
					
	군량미 도정공장	강경시내 문성당 앞	강경갑문	강경 하시장	
					
	강경 대홍수	민방위 훈련	가장행렬(1940년대)	중심가	
					
	강경 노동조합(1925)	강경 등대			
	광복 이후				
		강경 포구(60년대)	옥녀봉과 포구(60년대)	강경 포구(60년대)	옥녀봉에서 바라본 강경(60년대)
					
강경경찰서(60년대)		황산대교 기공식(1985)	강경 전경(2008)		

2.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 강경읍의 지속적인 쇠퇴에 대한 지역의 위기의식 공감, “강경 되살리기 운동” 전개(1998-)
 - 강경지역사회(번영회 등), 논산시, 충청남도가 공조
 - “강경 되살리기 운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 중앙정부의 소도읍 육성정책 기틀 마련

- “충남 고도옛모습 되살리기 기본계획(2001)” 추진
 - 충남내 지역문화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한 기틀 마련
 - 고도 역사환경 보전정비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 역사문화환경조성에 문화적 기반 구축
 - 근대도시로서의 강경의 정체성 확립 및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전·정비 필요성 인식 계기

- “강경소도읍 종합육성사업계획” 추진(2005-2008)
 - 논산시 주관, 강경지역사회(번영회 등) 참여,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
 - 실질적인 재원 투자로 강경발전 가속화(하드웨어 중심) ↔ 산업, 홍보 등의 젓갈산업, 가로환경정비, 국제현상공모 실적 미흡

- “강경지역 역사문화탐방코스 정비(2009, 논산시)” 추진
 - 부각되고 있는 기독교 성지순례코스를 중심으로 관광명소화
 - 역사문화환경의 재조명과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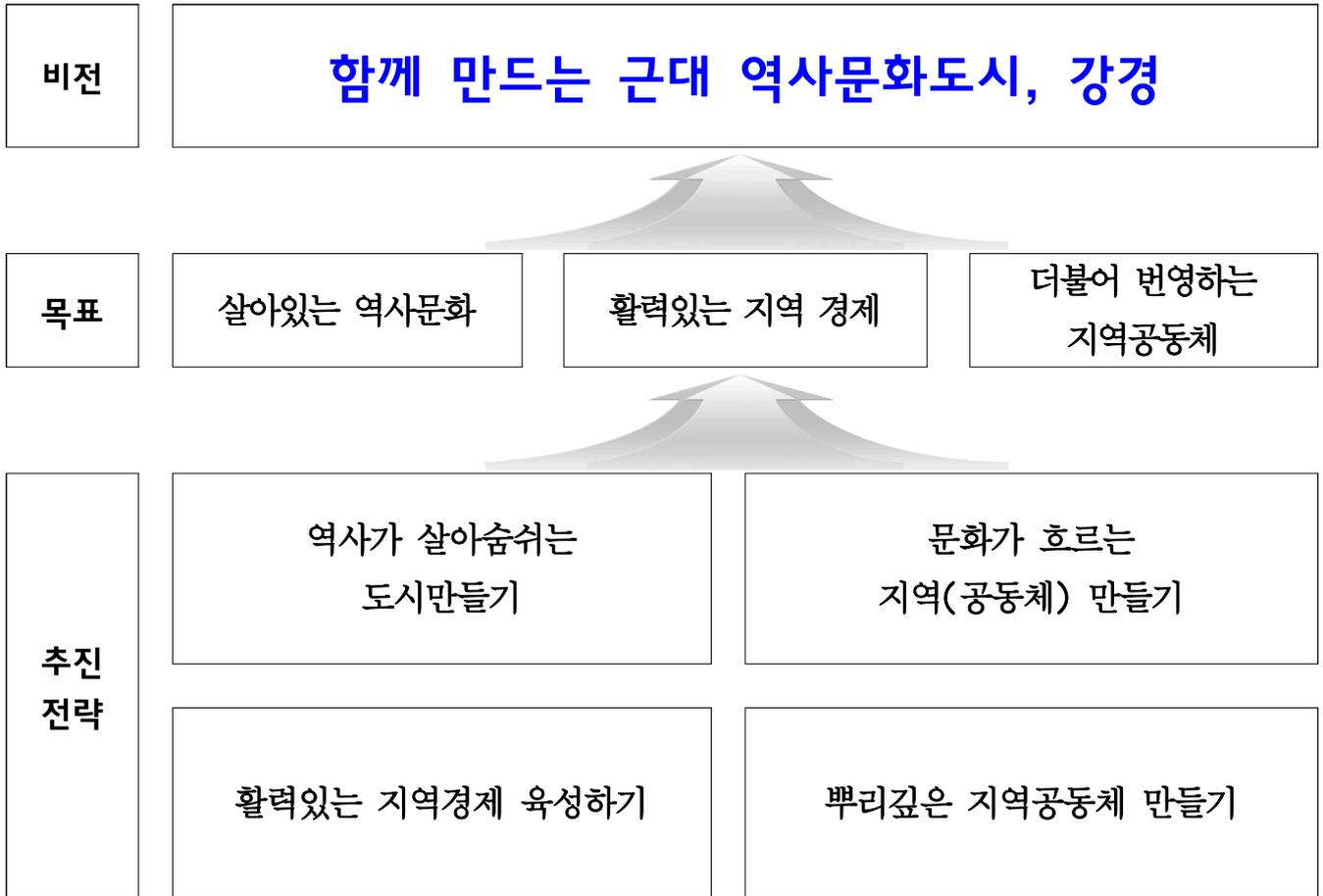
- “강경 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2012, 논산시)” 추진(현재 진행중)
 - 강경 근대 역사문화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 및 창조적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 거점지구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
 - 근대건축물 매입·복원, 한일은행 활용, 근대상업거리 조성 등
 - 역사문화환경의 재조명과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움직임

- 지역사회 주도의 “역사도시 강경 만들기” 추진
 - 강경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발간사업(강경기독교성지순례코스,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설립·운영(2011. 4. 15-):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발표, 학술세미나, 출판
 - 강경 역사관 개관(2012. 9. 4), 근대역사전시관 개관(2013. 10. 6)
 - 강경역사문화학교 운영(2014. 7. 10-8. 28)
- 관련 주민조직(단체) 간 공조 및 협업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노인회 등
 - 강경번영회, 자원봉사회, 새마을금고, 영농조합법인 등
- 과거 개발방식에 대한 반성과 주민 주도에 의한 지역활성화 추구
 - 내용 : 외형적 개발방식의 치중, 단편성에 그치는 사업, 관주도로 인한 지속가능성 미담보
 - 지역공동체 주도, 역량 강화, 거버넌스 필요성 인식

3. 이제 우리는 함께 상상하고, 꿈을 그리며, 그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과제

추진전략	계획과제	세부사업	핵심사업	비고
1.역사가 살아숨쉬는 도시만들기	① 역사자원 복원·활용 및 역사가로 만들기	· 매입 근대건축물 활용	○	
		· 경찰서 성역화		장기
		· 본정통 근대거리 조성	○	
		· 기독교 순례코스 정비		
		· 만동학교 복원(예술의집, 박범신 문학관)		
		· 호남병원 매입 및 복원·활용		장기
		· 금성다방 복원·활용		장기

추진전략	계획과제	세부사업	핵심사업	비고	
	② 역사자산 발굴·수집·연구·교육	·미발굴 자산 조사·발굴·수집	○	주민 자율	
		·어르신 강경이야기 수집		주민 자율	
		·중고제 복원 및 동·서편제 교류		주민 자율	
		·자원 등록·제도적 보전			
		·강경 역사 학습 동아리 운영	○	주민 자율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민 자율	
		·전문기관(논산시문화원, 충남역사문화원)과의 교류·연구		주민 자율	
		·강경 역사 교과서 마련 및 보급		주민 자율	
	③ 역사도시다운 생활공간 만들기	·조례 제정			
		·경관협정, 건축협정(디자인코드 개발 및 적용)	○	주민 자율	
		·생활공간의 재생(주택, 골목길, 공원 등)		주민 자율	
		·작은공간 랜드마크화(배수장→물사랑 교육관)	○	주민 자율	
	2.문화가 흐르는 지역만들기	① 정신문화 연구·교육·콘텐츠 개발	·항일, 반공, 개화, 경로, 스승 존경 콘텐츠 개발	○	주민 자율
			·체험·관광·안내 홈페이지 운영		주민 자율
·SNS-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주민 자율	
② 생활형 예술·문화의 보급		·연극, 합창, 관현악, 사진, 그림, 댄스 등 동호회 운영 및 평생교육과 연동 및 발표회 상시 개최	○	주민 참여	
		·다문화 교류 거점 형성 및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율	
		·주부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자율	
		·Fun-樂 페스티벌 개최, 거리 퍼포먼스		주민 자율	
		·초·중등학교 지역문화학습 교과목 채택 및 현장 학습			
③ 문화·예술 창조		·박범신 작가와의 만남의 장	○	주민 자율	

추진전략	계획과제	세부사업	핵심사업	비고	
	거점 조성	· 박용래 등 예술인 순환 모임		주민 자율	
		· 예술인 초청 강연		주민 자율	
		· 지역주민 창작 발표 대회	○	주민 자율	
3.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하기	① 젓갈산업 경쟁력 강화	· 수출 등 홍보 마케팅 개선			
		· 관련 조직 확대 및 재구조화		주민 자율	
		· 젓갈상점가 환경개선			
		· 문화코드 적용	○	주민 자율	
	② 전통시장·중심상점가 활성화	· 환경개선(공공디자인 적용)			
		· 마케팅 개선			주민 자율
		· 전통음식 개발 및 케이터링 서비스			주민 자율
		· 염장음식 개발(젓갈 백반)	○	주민 자율	
	③ 지역문화기반 신산업 육성 및 관광활성화	· 비지터센터 운영(노동조합)		○	주민 자율
		· 공방 조직 운영(한지 공예 등)			주민 자율
		· 챌린지 습 운영(건양대 실용학과)			
		· Living Lab 적용 및 운영	○	주민 자율	
4. 뿌리깊은 지역공동체 만들기	① 지역역량강화 교육	· 마을만들기 교육	○	주민 자율	
		· 리더(후계자) 육성	○	주민 자율	
		· 공동체 활동		주민 자율	
		· 지역마케팅 교육		주민 자율	
	② 주민주도 추진체계 구축	· 통합추진체계 구축(위원회) - 역사문화연구원, 강경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 전통맛깔짓, 상가위원회 등		○	주민 자율
		· 주변지역과의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자율
		· 전국 사회적 경제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주민 자율
		· 종교단체와의 교류 협력체계 구축			주민 자율
		· 외국과의 교류 협력체계 구축			주민 자율
	③ 주민조직의 자생기반 강화	· 전문가·조직과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			주민 자율
		· CB, 사회적 기업 등 운영·활성화 - 기념품 판매, 카페 등 부대사업		○	주민 자율
		· 협동조합 조직 운영		○	주민 자율
· 기금 모금				주민 자율	
		· 국비·도비·시비 확보			

4. 우리는 강경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경은 물을 이용한 물자의 이동으로 나무와 포구가 발생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강경에 있어서도 지금의 강경이 있게 한 근원적인 에너지원입니다.
-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이러한 물이 남겨놓은 역사적 흔적으로서의 다양한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강경은 미래에도 변치않고 물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물의 혜택을 어떻게 가꾸고, 계승하며, 발전시켜나가느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우리 개개인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구르는 Snow ball처럼 뭉치면 그 힘은 커질 것이고, 주민간의 결속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믿기에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 첫째, 물이 남겨준 혜택으로서의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다 함께 학습함으로써 강경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고, 우리 다음세대에게 새로운 가치를 남겨주려합니다.

- 둘째, 우리는 혼자만의 강경이 아닌 논산시, 충청남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강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고립된 강경이 아닌 개방형의 강경을 만들고자 하며, 인식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손잡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외지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강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셋째, 물은 과거에도 흘렀고, 현재도 우리마음속의 문화로서 흐르고, 미래에도 다양한 가치로 우리들 마음에 흐를 것입니다. 강경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 “강경 = ?” → “강경 = 근대 역사문화도시” 를 꿈꿉니다.

초기의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사례

[서산시 고북면 지역역량강화 사업 현장포럼 결과]

(주) 퍼포먼스웨이컨설팅

목 차

1. 현장포럼 개요	71
2. 현장포럼 운영시간표	72
3. 함께 토론 할 팀구성	72
4. 각 조별 토론의 기본원칙	73
5. 고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사업의 목적공유	73
6. 다시 찾아보는 우리의 자원	74
7. 우리지역 특색을 담은 테마찾기	75
8. 우리지역 테마를 담은 미래모습 만들기	77
9.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아이템 발굴	79
10.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79
11. 고북면의 비전체계 재정립	84
12. 현장포럼 진행모습	86
13. 현장포럼 성찰	87



고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

[현장포럼 결과정리]

2014. 7. 14~7.15, 양평쉐르빌연수원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Performance Way Consulting

현장포럼 개요

- 일 시 : 2014. 7. 14~7.15(1박2일)
- 장 소 : 경기도 양평 쉐르빌연수원
- 참석자 : 면소재지사업 추진위원 14명 및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가 등 10명 총 24명
- 주 제 : 지역발전테마 발굴 워크숍

목적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북면에 맞는 개발계획을 재검토 함

목표

1. 고북면의 자원 찾기
2. 고북면의 특색을 살린 발전방향 찾기
3. 고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과제 찾기
4. 고북면 비전 및 목표 재정립



현장포럼 운영시간표

날 짜	시 간	주 제	세부내용	비 고	
1일차 (14일)	08:00~10:30		고북면사무소 -> 양평쉐르빌로 이동	메인 퍼실리테이터 김윤이 보조퍼실리테이터 민예은, 안현욱	
	10:30~11:00	30'	도입		현장포럼 오리엔테이션, 토론준비
	11:00~12:00	60'	워크숍 I		고북면의 자원발굴
	12:00~13:00	60'			점심식사
	13:00~15:00	120'	워크숍II		고북면 발전테마 도출
	15:00~18:00	180'	워크숍III		고북면소재지개발 사업아이템 발굴
	18:00~19:30	90'			저녁식사(바베큐)
	19:30~21:30	120'	워크숍III		고북면소재지개발 사업아이템 발굴
2일차 (15일)	07:00~08:00	60'		아침식사	
	08:00~11:00	180'	워크숍 IV	고북면소재지개발 비전체계도 완성	
	11:00~12:00	60'	마무리	고북면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	
	12:00~13:00	60'		점심식사	
	13:00~15:00			현장견학(양평 세미나원)	
	15:00~17:30			양평쉐르빌 -> 고북면사무소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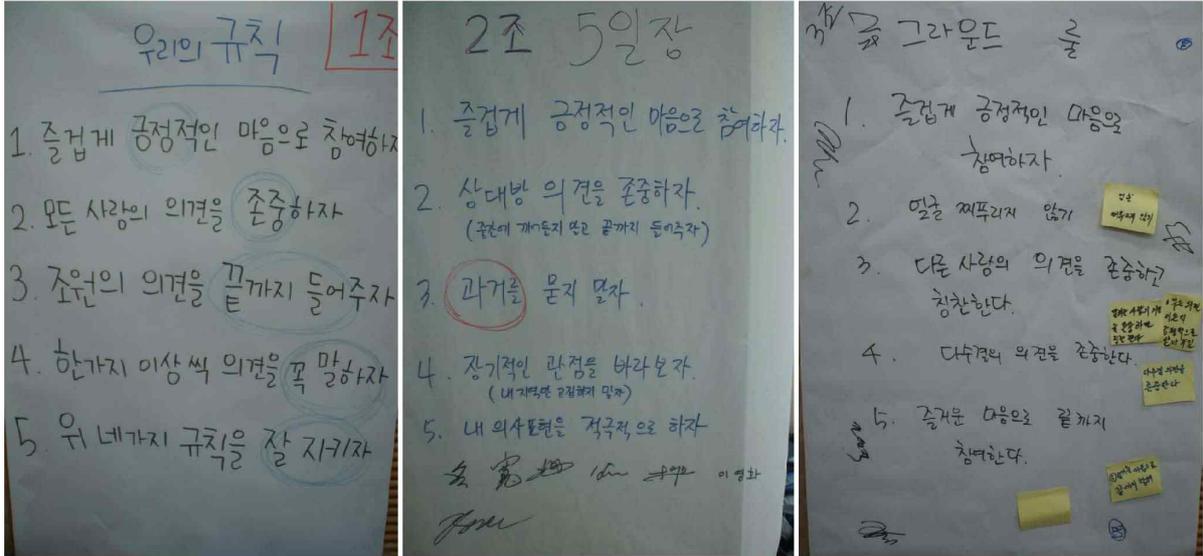
함께 토론 할 팀구성

- 3개리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함께하고, 전문가 1명씩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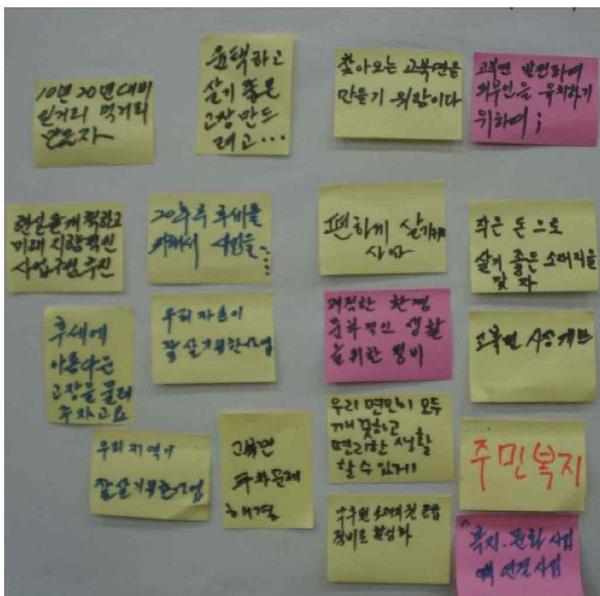
각 조별 토론의 기본원칙

▪ 효과적인 토론을 위한 각 조별 회의의 기본원칙을 정함



고북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의 목적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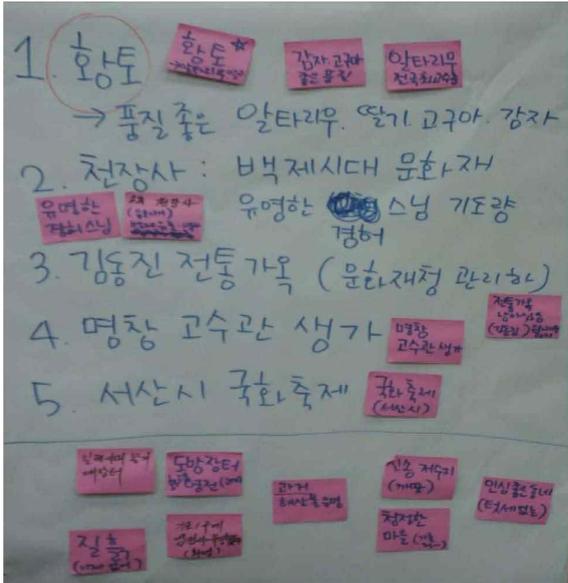
▪ 본격적인 주제토론에 앞서 고북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목적을 되돌아보고 공유함



- 10년 20년 대비 일거리, 먹거리를 만들자
- 현실을 개척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구성, 추진
- 후세에 아름다운 고장을 물려주자
- 우리지역이 잘 살기 위한 사업
-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려고..
- 20년 후 후세를 위해서 사업을 ..
- 우리 자손이 잘 살기 위한 사업
- 고북면 주차 문제 해결
- 찾아오는 고북면을 만들기 위함이다.
- 편하게 살기 위한 사업
- 쾌적한 환경,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정비
- 면민이 모두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 낙후된 소재지 종합정비로 활성화
- 고북면 발전하여 외지부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 작은 돈으로 살기 좋은 소재지를 갖자
- 고북면 시장 개발
- 주민복지
- 복지, 문화 사업과 연결 사업

다시 찾아보는 우리의 자원

- 우리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견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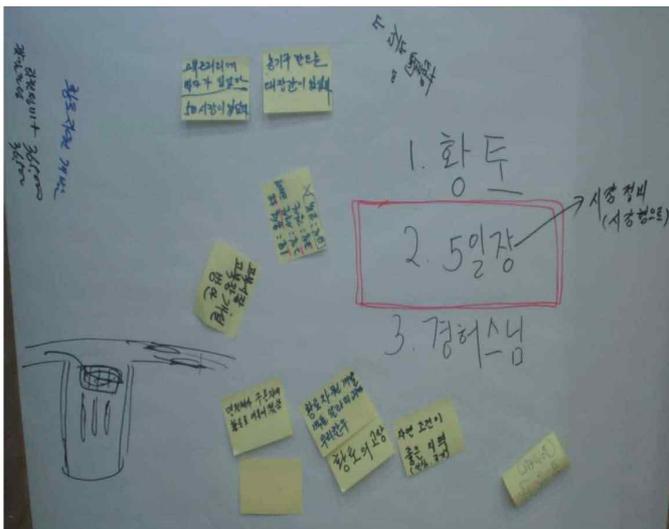


1조_황토

- 황토 → 품질 좋은 알타리무, 딸기, 고구마, 감자 (감자, 고구마 = 좋은품질, 알타리무 = 전국최고수준)
- 천장사: 백제시대 문화재, 유명한 경허 스님 기도량
- 김동진 전통가옥 (문화재청 관리)
- 명창 고수관 생가
- 서산시 국화축제

다시 찾아보는 우리의 자원

- 우리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견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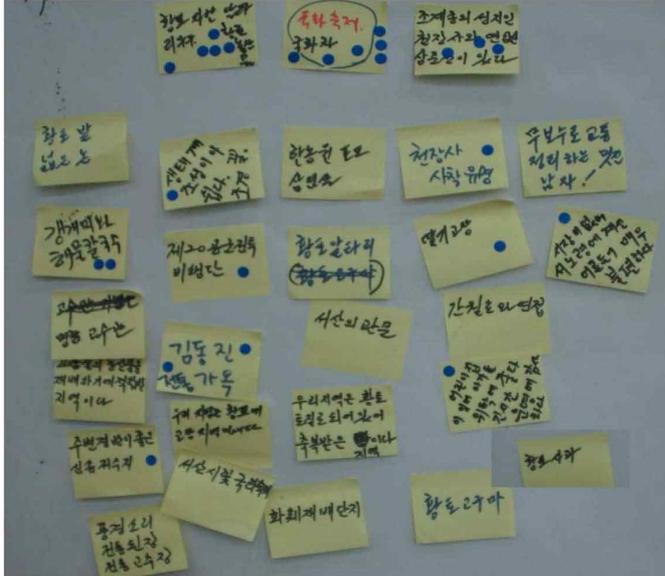


2조_5일장

- 황토
- 5일장
- 경허스님
- 자연 조건이 좋은 지역

다시 찾아보는 우리의 자원

- 우리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견을 나눔



3조_국화

- 국화축제 (국화차)
- 황토 농산물
- 조제종의 성지인 천장사와 연임산, 삼준산
- 갯개미와 해물갈국수
- 김동진 전통가옥
- 제 20공군전투 비행단
- 주변 경관이 좋은 신송저수지
- 천장사 시찰 유명
- 생태계 조성이 쉽다.
- 딸기고장

우리지역 특색을 담은 테마찾기

- 우리지역의 대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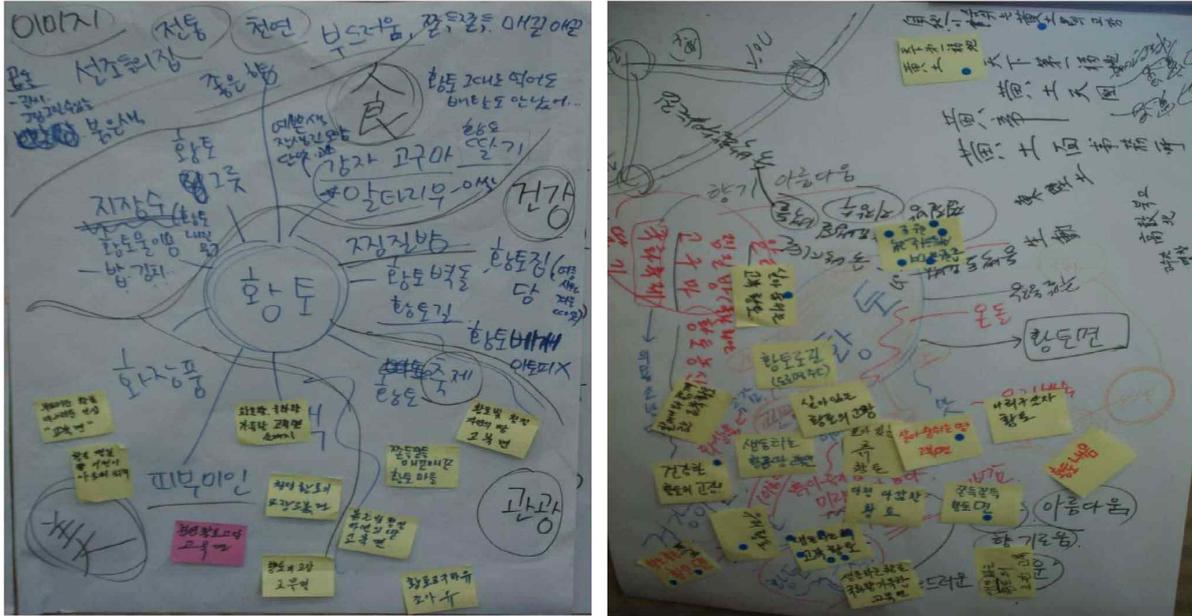


→ 가장 대표적인 자원인 황토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 고복면의 이미지를 찾는 이미지 연상기법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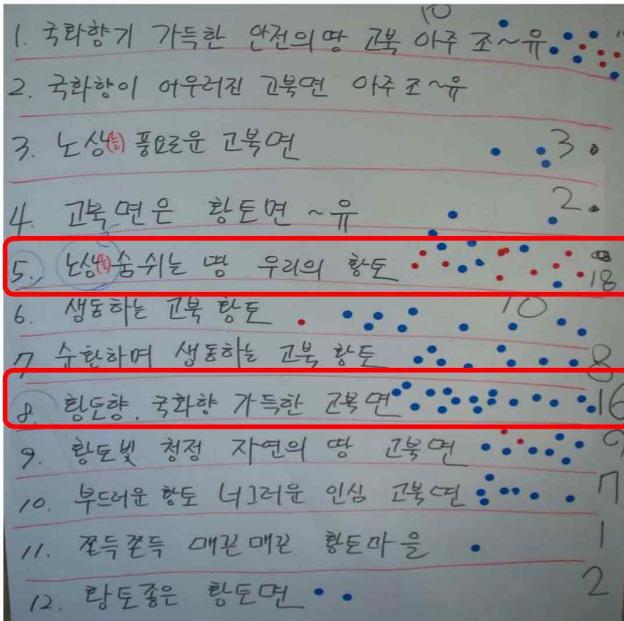
우리지역 특색을 담은 테마찾기

▪ 우리지역의 대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우리지역 특색을 담은 테마찾기

▪ 각조별로 발굴한 테마들 중 핵심 테마의 후보를 선정하고 2차 전체 종합 평가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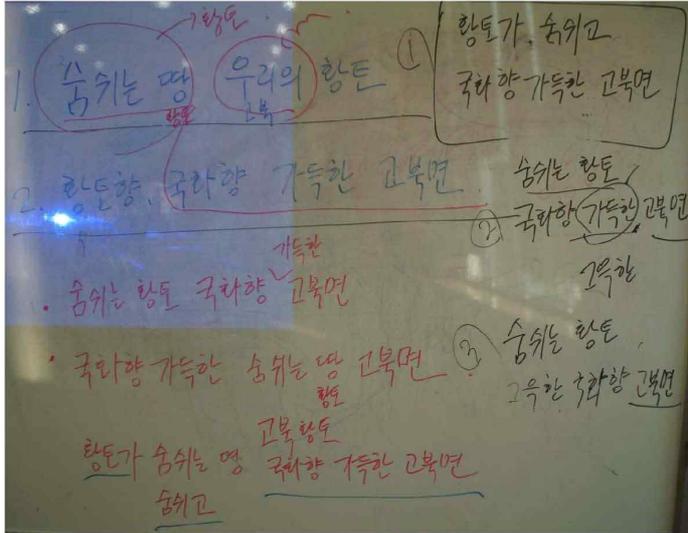
→ 고북면의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테마 선정을 위해
→ Multi Voting 방식으로 1인당 6표를 주어 가중투표를 실시함

전체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2개의 안 선정

- 노상(늘) 숨 쉬는 땅 우리의 향토
- 향토향, 국화향 가득한 고북면

우리지역 특색을 담은 테마찾기

- 전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2개의 테마에 대해 토론을 통해 최종 합의함



- 숨쉬는 땅 우리의 향토
- 황토향, 국화향 가득한 고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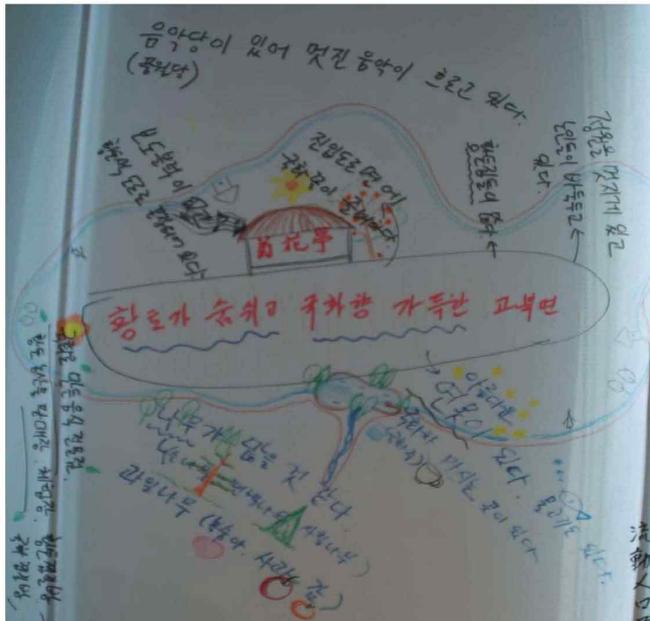
- 숨쉬는 황토 국화향 가득한 고북면
- 국화향 가득한 숨쉬는 땅 고북면
- 황토가 숨쉬는 땅 국화향 가득한 고북면



황토가 숨쉬고 국화향 가득한 고북면

우리지역 테마를 담은 미래모습 만들기

- 지역의 테마를 통해 발전된 미래모습을 상상하면서 앞으로의 해야할 사업을 발굴함



- 음악당이 있어 멋진 음악이 흐르고 있다
- 보도블럭이 없고 황토색 도로로 포장되어 있다.
- 황토집들이 많다
- 정원이 멋지게 있고 노인들이 바둑두고 있다
- 나무가 많은 것 같다. (과일나무, 소나무 등)
-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
- 국화차 마시는 곳이 있다.

우리지역 테마를 담은 미래모습 만들기

▪ 지역의 테마를 통해 발전된 미래모습을 상상하면서 앞으로의 해야할 사업을 발굴함



- 먹거리가 자연에 가깝다.
- 농촌이 살아난다.
- 체험관이 있다.
- 황토관련 농산물이 많다.
- 공기가 맑다.
- 교통이 좋아진다.
- 오염되지 않은 청청 농산물

우리지역 테마를 담은 미래모습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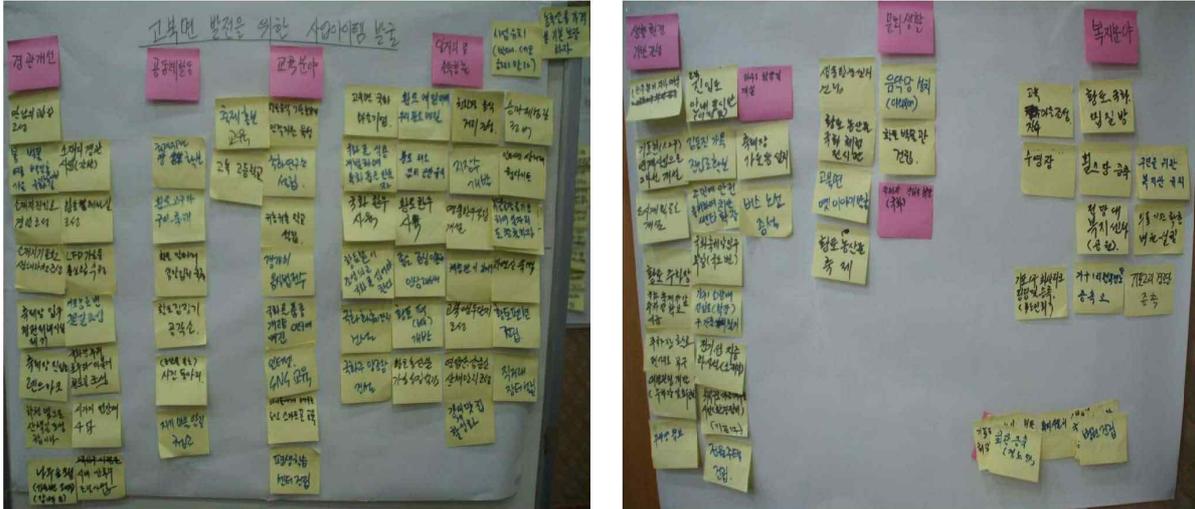
▪ 지역의 테마를 통해 발전된 미래모습을 상상하면서 앞으로의 해야할 사업을 발굴함



- 국화향 풍기는 농로길
- 황토길을 걸어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다.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아이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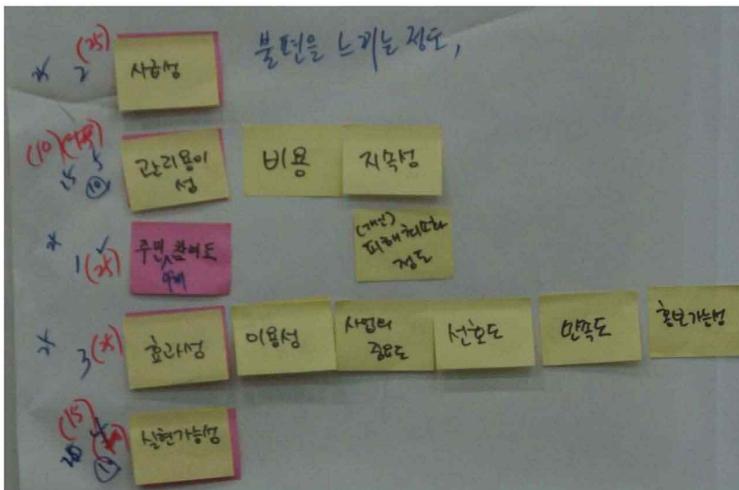
▪ 미래상을 통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분류함



경관개선, 공동체활동, 교육분야, 일자리 및 소득창출, 생활환경개선, 문화, 복지분야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발굴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토론을 통해 평가기준을 선정함



최종 선정된 평가항목과 비중

시급성(25%)

관리용이성(10%)

주민 이해도 및 참여도(25%)

효과성(25%)

실현가능성(15%)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선정한 평가기준과 비중에 따라 각 개별 사업아이템을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생활환경 기반조성						
항목	시급성	관리 용이성	주민이해도 및 참여도	효과성	실현 가능성	합계 점수
진입로 안내표지판	상	상	상	상	상	1000
전기선 지중화시설	하	상	상	상	하	795
김동진가옥 진입로 확보	하	상	상	상	하	795
기포천 연계사업 2차선개설	하	상	상	상	하	795
치안센터 인력 증원	상	상	상	상	하	895
하수도확장 및 개설	하	상	상	상	상	900
마을배수로 시설	상	상	중	상	중	795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선정한 평가기준과 비중에 따라 각 개별 사업아이템을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복지분야						
항목	시급성	관리 용이성	주민이해도 및 참여도	효과성	실현 가능성	합계 점수
복지센터 건립	상	상	상	상	상	1000
황토 농산물 국화 체험전시관	중	중	중	중	중	600
황토광장(야외무대)	상	상	상	상	상	1000
병원건립	상	상	상	상	하	940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상	상	상	상	상	1000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선정한 평가기준과 비중에 따라 각 개별 사업아이템을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경관개선						
항목	시급성	관리용이성	주민이해도 및 참여도	효과성	실현가능성	합계점수
만남의 광장 조성	하	하	하	상	하	475
축제장 진입로 폐건물 철거	상	상	상	상	상	1000
시가지 전망대 사업	중	중	중	상	중	700
축제장 진입로 랜드마크	상	상	상	상	상	1000
소재지 경관개선 (간판)	중	상	중	상	하	695
황토 테마길 조성	상	상	상	상	상	1000
면소재지가로수 조성	상	상	상	상	상	1000
LED 가로등 홍보탑	중	하	하	상	중	595
소재지 기포천 생태하천조성	하	하	하	하	상	405
축제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	상	상	상	상	상	1000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선정한 평가기준과 비중에 따라 각 개별 사업아이템을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교육분야						
항목	시급성	관리용이성	주민이해도 및 참여도	효과성	실현가능성	합계점수
축제홍보	상	상	상	상	상	1000
고북면 옛이야기발굴	하	하	하	하	하	300
고북 고등학교 유치	상	상	상	상	하	895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인적자원 육성	하	하	하	하	하	300
귀농귀촌 학교 설립	하	하	하	하	하	300
황토 관련 교육	하	하	하	하	하	300
국화 품종개량 연구에 매진	상	상	상	상	상	1000
인터넷 SNS교육	하	상	중	상	상	725
노인 스마트폰 교육	하	하	하	하	하	300
평생학습 센터건립	하	상	상	상	상	825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선정한 평가기준과 비중에 따라 각 개별 사업아이템을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일자리 및 소득창출 분야						
항목	시급성	관리 용이성	주민이 해도 및 참여도	효과성	실현 가능성	합계 점수
국화식용개발	중	상	중	상	중	740
국화 연구소 설립	하	하	중	상	중	595
국화화훼단지 건설	하	중	중	상	중	625
국화주 양조장 건설	하	중	중	상	중	625
고북면 국화마을 기업	상	상	중	상	중	840
황토한우 사육	하	중	중	상	중	625
황토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중	중	중	상	중	700
좋은 토심 이용하여 인삼재배	하	하	중	중	중	495
황토 팩(비누) 개발	하	하	중	중	중	495
황토편선건립	하	하	중	중	중	495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선정한 평가기준과 비중에 따라 각 개별 사업아이템을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함

일자리 및 소득창출 분야						
항목	시급성	관리 용이성	주민이 해도 및 참여도	효과성	실현 가능성	합계 점수
승마체험길 정비	하	하	중	중	하	450
인터넷 상거래 웹사이트	상	중	중	상	상	860
친환경 음식 거리조성	상	상	중	중	중	740
명품한우식당 개설	중	상	상	상	중	840
지장수 개발	중	중	하	중	중	525
고북 앵두단지 조성	사	하	중	하	하	375
연암산, 삼준산 산채 단지 조성	사	상	중	상	중	665
갯재미맛집 활성화	중	상	중	중	중	640
자연산 숙덕	중	중	중	상	중	700
직거래 장터설립	상	상	상	상	상	1000
체험관 설립	중	중	중	중	하	555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사업별 종합점수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고 재검토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정함
- 이번 고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최종 사업선정은 추후 워크숍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2017 4월 - 1차
단기 (1~3) 중기 (3~7) 장기 (7년이상)

1차(종합점수에 따른 분류)

2017 4월 - 2차
단기 (1~3) 중기 (3~7) 장기 (7년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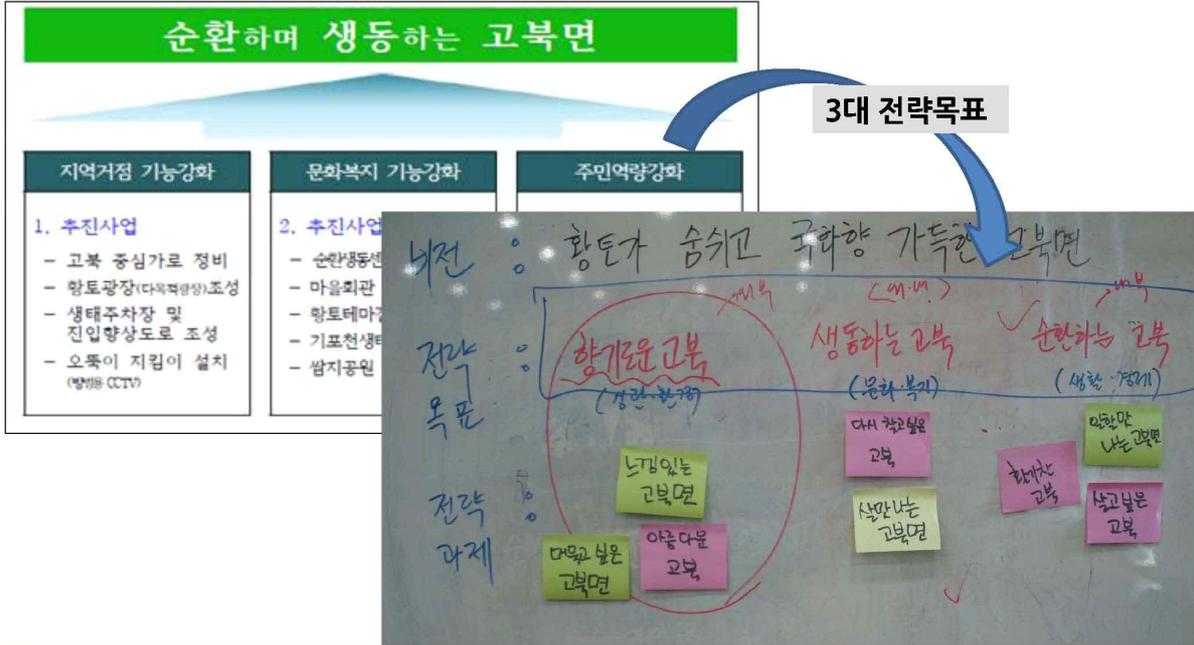
2차(전체 검토 후 조정)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단기(1년~3년사이)	중기(3년~7년사이)	장기(7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횡수 증차 • 공용주차장 건립 • 고북진입로 안내판 표시 (이정표) • 치안센터 인원 증원 • 하수도 확장 및 개설 (면소재지) • 복지센터 건립 • 축제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 • 면소재지 가로수 조성 • 향토테마길 조성 • 경로당(3개리) 증축 및 리모델링 • 향토관련 교육 • 향토광장건립(야외무대) • 축제장 진입로 랜드마크 설치 • 축제장 진입로 폐건물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홍보 • 노인 스마트 교육 • 평생학습센터 건립 • 국화품종 개량연구 • 고북면 국화마을기업 설립 • 명품 한우식당 개설 • 인터넷 상거래 웹사이트 • 직거래장터 설립 • 자기마을 안길 청소 • 고북 옛이야기 발굴 • SNS, 인터넷 교육 • (농산물 홍보)사진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 고구마 구이 축제 • 취락구조마을 배수로 시설 (기포1구) • 김동진 가족 진입로 확보 • 기포천 연계사업(2차선개설) • 향토, 국화 전시관 건립 • LED가로등 홍보탑 수정 • 소재지 경관사업(간판) • 시가지 전망대 조성 • 향토, 국화 한우 사육 • 향토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 국화 식용식품 개발 • 국화 연구소 설립 • 국화 화훼단지 건설 • 국화주 양조장 설립 • 친환경 음식거리 조성 • 지장수 개발 • 연암산, 삼준산 산채단지 조성 • 체험관 설립 • 고북향토 먹거리 개발 • 의료기관, 병원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 집짓기 공작소 • 축제 위한 땅 확보 • 만남의 광장 조성 • 기포천 생태하천 조성(산책길 포함) • 귀농귀촌 학교 설립 • 향토음식 기능보유 인적자원 육성 • 향토 인삼재배 • 향토펜션 건립 • 향토 관련상품 개발(떡 비누등) • 승마체험길 정비 • 고북 앵두단지 조성 • 고북 고등학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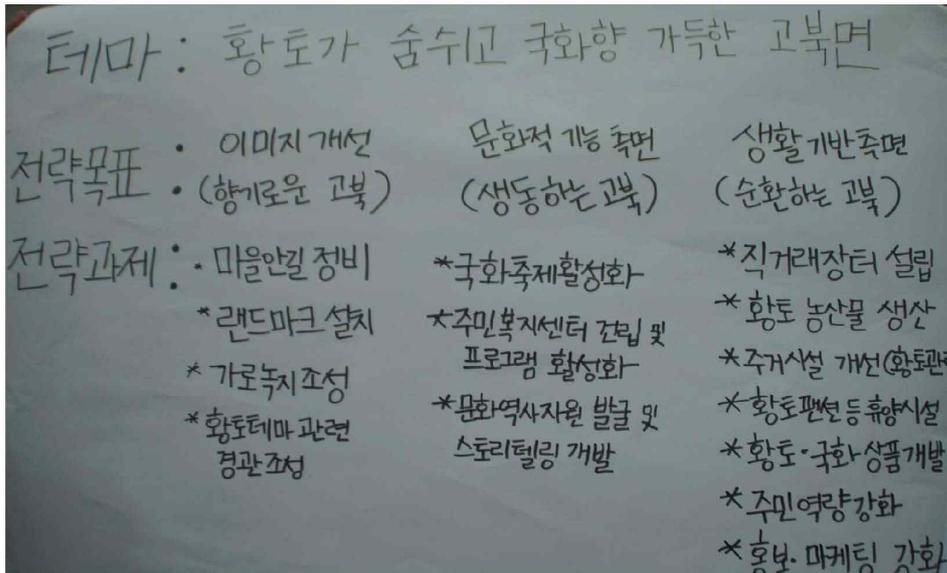
고북면의 비전체계 재정립

기존의 예비계획에서 작성된 예비계획을 비전(테마)에 맞도록 토론을 통해 전략목표 재 설정함



고북면의 비전체계 재정립

각 조별로 발전테마의 비전에 따라 전략체계 재정립 아이디어를 도출함



1조_전략목표

향기로운 고북
생동하는 고북
순환하는 고북

고북면의 비전체계 재정립

▪ 각 조별로 발전테마의 비전에 따라 전략체계 재정립 아이디어를 도출함

비전 황토가 숨쉬고, 국화향 가득한 "고북면"

3대 전략목표

- 살고싶은 고북 (주민복지)
- 연심공은 고북 (정년)
- 다시 찾고 싶은 고북 (3도2군)

전략과제

- 고북면 복지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 연심공은 고북 (정년)
 - 연간까지 정년 준비 및 축제 천주사 편백나무 숲은 연계하는 방안 마련
- 다시 찾고 싶은 고북 (3도2군)
 - 고북면 연가 방문객 10만 이상 확보 (국화축제, 향토음식축제)
 - 항동농장 조성
 - 축제 활성화
 - 항동길 조성

2조_전략목표

살고싶은 고북
아름다운 고북
다시 찾고 싶은 고북

고북면의 비전체계 재정립

▪ 각 조별로 발전테마의 비전에 따라 전략체계 재정립 아이디어를 도출함

비전 : 황토가 숨쉬고 국화향 가득한 고북면

3대 전략목표

- 다시 찾고 싶은 고북
- 행복한 고북
- 백세가 보장되는 고북

전략과제

- 주민복지시설 확충
- 주민여가교육
- 상생태하천정비
- 농촌문화복원
- 각계각처 활성화
- 전통(하천) 문화개방
- 국화, 황토 연계상품개발
- 대중 문화거리 조성
-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 점점 더 나은 농산물 생산
- 국화 축제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황토 테마길 조성
- 간판정비
- 숙박 시설 조성

3조_전략목표

다시 찾고 싶은 고북
행복한 고북
백세가 보장되는 고북

고북면의 비전체계 재정립

▪ 각 조별로 제출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최종 종합하여 완성함(추후 워크숍시 검토 및 공유 필요)

비전
(발전테마)

황토가 숨쉬고 국화향 가득한 고북면

전략목표

향기로운 고북
(경관, 환경)

생동하는 고북
(문화, 복지)

순환하는 고북
(생활, 경제)

전략과제

- 기포천 하천정비
- 황토테마 관련 경관 조성
- 소재지 주변 간판정비
- 마을안길 정비
- 고북면 랜드마크 조성
- 가로녹지 조성

- 주민복지센터 건립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국화 축제 활성화
- 황토 축제 개발 및 운영
- 문화역사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개발

- 5일장 복원사업
-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
- 황토, 국화 상품개발
- 환토펜션 등 휴양시설
- 황토테마를 입힌 주거단지조성

현장포럼 진행모습



현장포럼 진행모습



Copyright©Performance Way Consulting, Inc. All rights reserved.

33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Performance Way Consulting

현장포럼 성찰

▪ 1박 2일간 현장포럼을 진행하며 느낀 점 공유

- 마을사업 진행 시, 퍼실리테이션을 적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 배운점도 많았고 사업에 대해 내고 싶었던 의견들을 마음껏 얘기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자리라서 좋았다.
-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
- 고북이 아름답게 되지 않나 기대해 본다.
- 1박2일간 좋은 대화를 나눴고 사업하는 동안 잘 됐으면 좋겠다.
- 국화향이 가득한 고북면을 만들자는 말에 감동 받았다.
- 교육 참석 유도 등 이장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사안에 협조하겠다
- 68억이라는 큰 돈을 잘 쓸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 개인 일로 모두가 참석 못해 아쉬웠고 모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Copyright©Performance Way Consulting, Inc. All rights reserved.

34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Performance Way Consulting

